第281回國會 (臨時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2 號
(임 시 회 의 록)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2月9日(月)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현인택)인사청문회
2.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현인택)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審査된案件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현인택)인사청문회 ····· 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국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일 제1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 순서는 실시계획서에 따라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신문과 보충질의·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현인택)인사청문회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현인택)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분단 조국의 통일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청문 대상자인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소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현인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09년 2월 9일

공직후보자 현인택

○위원장 박진 다음은 현인택 통일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존경하는 박진 위원

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준비해 주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가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받는 자리인 동시에 제가 앞으로 맡을 소임과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분야 학자로서 한반도 상황과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역사적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제가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는 사실상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분단 상황을 여하히 잘 관리하고 극복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청문에 앞서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소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정책에 있어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해 통일을 이룩한다는 큰 방침을 견지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화해와 협력의 기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대북정책 구상인 상생과 공영의 정책도 이러한 기조에 입각한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 공존, 상생의 경협을 통한 공동번영, 남북한 모두에게 시급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노력들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바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장관이 되면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 구상,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 많은 대화와 교류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신뢰의 부족 때문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남북이 모두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상호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남북한 대화는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남북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고 좋은 구상이 있어도 대화가 없으면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해결의 길은 찾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상생과 공영이라는 공동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생각할 때 남북관계에서 대화에 어떠한 조건이 붙는다거나 대화 자체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대화가 복구되면 다시 단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설 대화기구 등 지속가능한 대화체제를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남북 당사자

간의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조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분명 남북한이 당사자 해결의 원칙에 따라 풀어 나가야 할 민족 내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당사자인 남북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국제정세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통일정책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은 서로 다른 남북한의 두 체제 간의 문제이며 안보와 협력이라는 상반될 수 있는 가치가 공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문제마다 모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고 이를 두고 국내적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내부에서 비생산적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면 대북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진 분단 극복의 과제란 매우 엄중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동참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합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지지와 협조야말로 통일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는 데 모범을 보이는 통일부장관이 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대북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초당적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통일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이를 통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시기 남북관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진전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와 같은 조정기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보다 나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에 맡겨진 막중한 책임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충고와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리 내외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다소 긴장된 분위기입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평소 소신대로 차분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 내에 질의·답변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1분간 마무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도 역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앞서서 증인 신문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예, 문학진입니다.

통일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심의하고, 우리나라 통일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능력과 전문성은 물론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통일부장관 현인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착잡합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현 후보자의 부적합성이 매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탈루 목적의 편법 증여, 임대소득 탈루, 논문 중복게재를 통한 연구업적 부풀리기, 자녀의 이중 국적, 위장 전입,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 등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의혹만으로도 후보자 내정을 철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밀어붙이기에 급급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 또한 이미 사퇴를 해도 열 번은 더 했어야 할 각종 부정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마치 이미 통일부장관이 된 것처럼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한테 묻습니다.

이제까지 밝혀진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통일부 대변인을 시켜서 했거나 본인이 직접 한 해명들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진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간에 언론에서 많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언론에 접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들이 저한테 직접 오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언론에다가 얘기할 수 없는 사정으로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진 위원 자,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요.

이런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통일부 대변인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한 건 월권 아닙니까? 아직 장관 아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물론 저는 임명되기 전의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대변인은 현직 통일부장관의 대변인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언론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또 언론은 저의……

○문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됐습니다.

후보자는 2006년 3월 2일 후보자의 부친 소유였던 성일운수 소유의 대지, 제주도 연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보다도 싼 가격에 취득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후보자의 부친께서는 2006년 2월, 한 달 전에 회사를 직원한테 매각했었습니다. 제3자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제3자를 이용한 편법증여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의 부친이 지난 30여 년간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올해 연세가 89세 되십니다. 거의 90세가 다 되셔서 도저히 회사를 더 이상 경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데 만약 회사를 타자에게 매각하면 30년 동안 같이 일해 왔던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친께서 같이 일하던, 30년 동안 그야말로 자식같이 아끼던 직원들의 실직의 우려를 염려해서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양도한 이후에……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시간제약 때문에요.

후보자님, 다른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재산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으로. 그때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현 내정자가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인수위에서 일했던 분들은 아마도 그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당시……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때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통일부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아마 정확했을 거예요. 폐지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에 있었던 현인택 내정자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시 부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암묵적 동의 아니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당시 저는 인수위의 외교통일안보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교통일안보위원회가 하는 일은 정책을 다루는 일입니다.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문학진 위원 그것은 달리 또 질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현인택 내정자, 후보자의 대북관 또는 통일관에 대해서 현 내정자가 직접 쓴 논문, 칼럼 몇 가지를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2002년에 발표한 논문 '한반도 평화와 군사안보', 이 논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반도 장래를 생각할 때 가장 영구적이고 탄탄한 평화의 도래는 같은 체제를 가진 두 국가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문학진 위원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 이것이 우리 헌법정신 아닙니까? 이것에 명백히 상충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그 논문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논문에서 기존의 통일이나 평화를 설명하는 네다섯 가지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중에 한 이론이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제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 1997년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체제는, 북한의 체제를 얘기합니다. 유형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대명천지에 같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지금 기본입장이 상호체제 인정·존중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서로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대화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당시 그 글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1996년, 1997년경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북한에 상당히 많은 기아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계에서 북한의 체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는 그럼에도 북한이 그렇게 체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그런 아사 또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문학진 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윤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우리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정치를 잘 아시는데 북한은 잘 모른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글도 물론 많이 썼고 또 생각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북한을 잘 아신다는 장관님 오셔서 한 것이 뭡니까? 지난 10년 동안 대북 퍼주기에 북한 비위 맞추기의 10년 아닙니까? 북한 비위만 맞추면…… 그런 쉬운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은 물론 공과 과가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로 대북정책의 큰 틀은 여러 정부를 거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포용이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 10년은 아마 남북대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지난 10년의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본생각으로 가졌던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그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던 점, 또 남남갈등이 심해졌던 점, 이런 점들은 아마 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지난 대북정책을 보면 한·미·일 간의 국제공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한 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서는 한·미·일의 공조가 중요한데 결국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왔고 한·미·일 간에 엇박자를 가져온 그런 정책을 구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제정치를 잘 아시는 후보자님께서 오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전임 정부에서 내놓은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6·15하고 10·4 선언이지요, 6·15하고 10·4 선언?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윤상현 위원 잘 아시지요? 6·15하고 10·4 선언을 지키지 않은 쪽이 어느 쪽입니까, 도대체?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희들은 충실하게 지키도록 물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간에 여러 가지 합의정신, 7·4 공동성명도 있었고 또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 또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선언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앞으로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관해서는 특히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희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거론해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남북 대화가 완전히 지금 단절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조차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6·15하고 10·4 선언 중에 지금 북측에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게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문제,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해결 문제, 상호존중·내정 불간섭 문제 또 비방 중지 이런 것들을 지금 북한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북한의 적반하장식의 요구를 접고 북한을 대남 테이블, 남북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상황이 상당히 어렵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를 제기하겠습니다.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대화의 테이블에서 저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에게 저희들의 정책의 진의를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비핵 개방 3000을 입안하는 데 주도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상생·공영 정책의 하부 정책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것은 상생·공영 정책과 큰 틀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왜 비핵 개방 3000이 북한에게 유익한 제안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려진 것처럼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정말로 무슨 보수 강경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비핵 개방 3000은 그야말로 남북한의 공존과 공영 정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남북한이 미래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현재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고 오히려 북한 스스로 핵보유 강성대국임을 주장하고 있고 핵군축회담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비핵'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비핵화'라고 단 것에 대해서 어떤 단계별 대응책을 갖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윤상현 위원 그리고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제가 알기로 한 500달러 내지 700달러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내 3000불 어떤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에 관해서, 통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뭐 500달러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 통계로는 약 1157달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기준 출발 시점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경제학자들, 훌륭한 경제학자들을 전부다 모시고 시뮬레이션을 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과 3000불 소득이 10년 안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을 통해서 다 잘되면 충분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고 그것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북한이 이를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마도 저희들의 정책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상생·공영 정책을 우리가 영어로 할 때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 policy'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윈윈 팔러시(win-win policy)' 이런 식으로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방향성이 나타나게끔 고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국민들이 알기 쉽고 또 내용에 더 가까운 그런 표현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통일부장관은 남북 관계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직무라고 그러는데 동의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대북정책과 관련된 소견에서 중단된 남북대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또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지금 남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어쨌든 대화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통일부장관 혼자서 대화를 하겠다고 노력을 해 본들 북한에서 호응을 해 주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북한에서는 통일부장관 임명이 마치 자기네 소관인 것처럼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망언을 지금 일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대화로써, 남북대화로써 한반도 평화 증진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건데 1월 25일날 북한 민주조선 신문에서 통일부장관 내정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 '동족 대결을 강화하려는 범죄행위다. 어떤 파국적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1월 30일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역시 내정자에 대해 '대결 각본을 고안해 낸 악질분자다. 남북관계는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 그리고 어제는 역시 민주조선에서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고 앞으로 결딴 나고 말 것이다' 하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보는 입장이 이러한데 어떻게 원만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게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부장관으로서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할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논평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일은 아니지만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통일부장관내정자가 대화를 복원하기는커녕 대화 중단을 더 강화시키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유래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원만한 수행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내정자 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제가 그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정책, 특히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박주선 위원 간단히 말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함으로써 저는 그런 오해가 풀릴 수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아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사퇴할 의사는 없으시고요?

아까 신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대북정책의 소견으로 내세우셨는데 지금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치인이 서명을 했다고 그래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이행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정부에서 여러 번 피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내정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문제는 아까 잠시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합의정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지난 우리 남북기본합의서 이 모든 문제를 같이 놓고서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서, 특히 10·4 선언에는 많은……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10·4 선언과 6·15 공동선언을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했고 유엔에서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무조건 이행을 하는 것이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우리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이행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문제는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앞으로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됐습니다.

지금 미국발 여러 가지 보고와 보도에 의하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복수의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도 모두 확보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한 일이 있고 2008년 11월 25일 역시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의 핵보유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2008년 11월에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에서도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 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서버리면 후보자께서 기조로 했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북한이 핵을 가졌느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각의 다른 어떤 추정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핵 개방 3000이란 정책은 이미 북한이 핵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이 정책은 대북정책으로서 전혀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닙니다. 그것은……

○박주선 위원 폐기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 됐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리고 그것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2001년도에 신아세아에 기고한 후보자의 기고문에서 '기로에 선 대북정책'이란 표제를 가지고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적 합의, 상대로부터의 호응, 주변국들의 지지 등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이 효율적인 대북정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에서 호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북정책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북한하고 서로 마주 앉고 대화를 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핵 개방 3000의 큰 틀을 정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했거나 핵을 보유한 개연성이 굉장히 높을 때 오히려 비핵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권영세 위원 이미 핵을 하나도 안 가진 상태에서 비핵화 정책이 그렇게 절실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리고 핵을 보유케 하거나 또 핵을 보유했을 개연성이 높게 만든 지난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희들이 그간에 93

년 북한이 제1차 핵 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권영세 위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세 위원 전임, 아직은 전임이라고 하기가 뭐하네요. 내정자께서 임명이 되시면 전임이 되실 텐데 김하중 장관의 통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김하중 장관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통일부가 그렇게 전면에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남북 관계가 그동안 경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다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통일부 폐지론에는 내정자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권영세 위원 당시에 폐지론이 틀림없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폐지론자들의 폐지 논거는 뭐였습니까? 과연 통일부를 왜 폐지해야 되느냐,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저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통일부가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평가 때문에 나온 또 하나의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권영세 위원 내정자께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지난 통일부 10년에 대해서, 제가 과거의 어떤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굳이 그것까지는 제가 평가를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부가 역할을 여태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기능적으로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다 분해를 해 보면 다른 각 부처에다 환원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논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통일부가 다른 부처와의 역할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고 통일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부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앞으로 하여간 남북 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향해 가는 그런 업무가 바로 통일부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앞으로 성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내정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좀 추상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면 사실은 외교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거나 또 남북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있어서 거기서도 크게 봐서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데 외교부도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 지금 통일부를 제외한 14개 부처 중에 13개가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부처와는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비슷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각 부처가 각기 고유의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도 특히 대외 관계 문제를 다뤄야 되고 국정원 같으면 보다 정보 분석을 하는데 더 치중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북교류도 여러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일부가 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아주 필요하고 긴요하고 앞으로 그 역할과 이런 업무들을 잘 발전시켜야 남북 관계가 제대로 풀리고……

○권영세 위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대북 문제나 여러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기능에 따라 나눠져 있지만 통일부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는 어떤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지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맞습니다.

컨트롤 타워라는 표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통일부가 다른 부처를 다 관장한다는 의미로는 제가 받아……

○권영세 위원 대북 업무에 관한 한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대북 업무에 관한 한 통일부가 주가 되어서 한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교류협력은 경제부처가 훨씬 더 잘한다' 이렇게 질타를 하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통일부 폐지론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질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일부 언론의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통일부 업무를 좀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한 것은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계적인 경협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제부처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대북 정책의 어떤 목적성이라든지 방향성의 측면에서 통일부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남북 관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경제부처가 다룰 수 있는 문제여도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통일부가 또 해야 될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위원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 정책 이름은 지금 '비핵 개방 3000'이라기보다는 '상생·공영 정책'인데,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상생·공영 정책 간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까 우리 윤상현 위원은 하부 관계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희 지난 1년 동안 상생·공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비핵 개방 3000도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야권에서나 정부에 비판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핵 개방 3000에서 비핵이나 개방 이런 부분을, 목표는 좋은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 수단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이라는 당근 외에 혹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 외에는 수단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이것은 앞으로, 비핵 개방 3000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단계적인 발전 과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이런 식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그 큰 구상입니다.

앞으로 비핵의 문제는, 사실 북한도 바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6자회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봤을 때 남북한의 공존과 공영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큰 틀 속에 들어 있는 비핵 개방 3000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이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서로의 신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랑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박선영 위원 믿음이나 신뢰는 정직성에서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논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 기준이 사실 전문가로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정자께서 지금 곤욕을 치르시는 논문 이중 게재라는 것도 우수 논문의 경우에는 재게재 요청이 수없이 다른 학술지에서 오기도 하고 또 재게재를 해 줘야 할 당위성도 있습니다.

또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디벨롭(develop)시킬 수도 있고 좋은 논문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이제스트(digest)화해서 다양하게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벨상 수상 논문들의 경우에는 쪼개서 보다 쉽게 나누어서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발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논문 이중 게재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정자께 사전에 질의를 드려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답변서 제출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을 받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내정자께서 이야기하시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덕목이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정직이어야 하는데, 2월 2일 날 논문 이중 게재 의혹이 제기되니까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을 통해서 '1995년도 정책 연구지에 실린 논문은 내부 세미나용이었고 그게 게재되는지 본인도 몰랐다' 여기까지는 저는 같은 학자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한 번도 연구업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서면답변 주신 내용에는 그대로 연구업적에 95년 정책지 논문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박선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것은……

○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김호년 대변인이 발표한 것이 허위입니까, 저에게 서면답변을 한 것이 허위입니까? 2개 중에 하나는 허위이겠지요. 우리 국회법상 허위 증언은 분명히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 당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사실상 행정착오가 조금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박선영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군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 자료가……

○박선영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1994년도에 '미·일 간 산업·군사 기술 마찰 실태와 협력전망'이라는 연구 프로젝트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것이 기반이 돼서 95년 논문, 96년 논문이 나왔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95년……

○박선영 위원 그러면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로 그렇게 2개의 논문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아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사실이……

○박선영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7년도 고려대학교에 연구업적, 승진용으로 제출한 것에 보면 이 안에 들어 있는 '세계화 시대의 국제정치'가 연구업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

○박선영 위원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94년도 계간 사상에 '세계화 시대의 국제정치'라고 해서 94년 겨울호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현 교수님께서 …… 고려대학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면 단 2건의 논문을 내셔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가 95년도에 나온 것을 다시 연구업적으로 신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94년도에 썼던 논문을 96년도에 책으로 내시면서 또다시 97년도 승진용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논문이 하나도 없는 게 되네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아니요, 지금 보십시오. 다 맞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94년도의 것을 96년도에 책으로 묶어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95년도 논문은 그 전에 한 번도 연구업적으로 활용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짓말이, 이중 삼중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논문 하나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문 이중 게재는 여러 가지 사정상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수한 학자일수록 노벨 각종 수상처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서면답변서에 아까 행정착오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승진심사용으로 제출한 단 2건의 논문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논문으로 낼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같은 학자 출신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학자로 있으면서 학술 논문을 수십 편, 아마 한 4, 50편 썼고 최근에 제가……

○박선영 위원 아니, 몇 편을 쓰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리고 그 정책연구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박선영 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이해해 드린다고……

좋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아까 우리 앞서의 다른 위원들이 문제 제기 했던 것과도 똑같은 답변을 지금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데요. 다른 문제 제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 주십사 했을 때 제출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어떤 임대차 계약서요?

○박선영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부동산 갖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거기의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제출 안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임대차 계약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 답변만 하십시오. 제출 안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제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서면답변에서 소액이고 친척에게 주었고 부정기적이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쭙겠습니다.

1층에 제일부동산중개사무소 지금 영업 중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그다음에 제일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에는 동강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이 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이 부동산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요. 공인중개사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설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동강부동산이나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제일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그다음에 위조등공문서행사죄, 사문서 위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왜요? 지금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설해서 사업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없는 것을 어떻게 제출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정자께서 거짓말을 하시든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제삼자를 형사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게 진실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부동산은 3분의 2는 제가 소유하고 있고 3분의 1은 제 모친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임대를 준 것은 제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 모친이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선영 위원 공동소유면 공동소유자로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어야 되고 그것을 제출하셔야지요. 모친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를 모친 명의로 썼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박진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이 되어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내정자 전체 소유로……

○위원장 박진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거짓말하십니다. 토지는 지분 소유지만 건물은 내정자 전부 소유입니다.

○위원장 박진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지금 또 거짓말하고 계세요.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저는 현인택 통일부장관후보자가 학문적으로나 정책수립 능력으로나 인격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이 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통사고를 12건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게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나, 또 앞으로 장관이 되면 법을 이렇게 잘 지키지 않는다면 잘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짤막하게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어쨌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환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54편 중에서 32편을 최근에 정리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게 현 후보자 이외 다른 학자들도 대개 이런 식으로 50건 중에 한 30건을 다시 정리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난 2008년 6월에 고려대학교의 논문 등재 시스템하고 학진의 논문 등재 시스템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학교에서 누차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안식년이 되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 논문을 없애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김충환 위원 이것은 시스템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씀이군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비전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하자면 무엇 무엇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첫째는 평화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 공동번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국민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 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정책의 원칙으로 상호주의, 또 정상회담의 재고…… 이 재고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정책의 제도화 이런 것을 논문에서 주장했는데 이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의 경제력이나 국력의 차이로 볼 때 1 대 1 경쟁은 아니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남북협력관계가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이 한 3억 5000, 또 민간 부문까지 한 8억,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억 불 정도의 지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 개성공단이 개방이 되고 또 금강산이 개방이 되고 약 2만 명 정도의 남북한 인적 교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18억 달러 정도의 물자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상호주의원칙에 맞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상호주의를 기계적 상호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받을 때 그것을 똑같이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상호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충환 위원 현재까지는 상호주의가 안 됐다고 보느냐, 됐다고 보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 이 말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우리들이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많이 제공을 했고 또 북한으로부터는 우리가 덜 받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은 것, 북한이 남쪽에다가 준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우리가 돈을 더 깎으면 그게 형평에 맞다 이렇게 봅니까, 대강?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협력을 하거나 그런 돈으로 갈 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할 때 북한이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북한도 대신해서 우리한테 그렇다면 해 줄 수 있는 것,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김충환 위원 비핵 개방 3000을 주도한 것이 사실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남북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신 바 있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그렇다면 그 정책을 입안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남북대화를 잘 이끌어 갈 자신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자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대화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 위원 대화와 핵 문제 해결이 아주 중요하다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대화의 중심 과제가 핵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까? 통일부장관이 추진하는 남북대화의 핵심적인 노력이 핵 문제가 되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핵 문제는 지금 6자회담에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핵 문제는 남북 문제인 동시에 이미 국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 간에도 물론 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은 국제적인, 즉 다자회담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비핵화와 대북정책이 선후관계입니까, 병행관계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비핵 개방 3000이 선 핵 비핵화 정책이다라고 일부 주장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도와주느냐를 얘기해 주는 매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병행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6·15와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북한하고 우리가 지난 많은 합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충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지 말고 짤막하게……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합의정신을 같이 존중해서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지금까지 통일부에서는 정신을 존중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 장관 내정자가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6·15, 10·4선언을 존중하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전향적인 방향에서 하여간 남북 합의의 기본정신을 존중한다 이런 정신에서 북한과 정말로 진솔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그러면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현 장관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임기 중에 아마 남북대화가 힘들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만약에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 이렇게 계속 됐을 경우에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화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는 학자들이,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우리 남북한이 처해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비핵 개방 3000에 관해서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에 정말로 진의가 제대로 알려지면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남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후보자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남북 평화 또 통일에 대한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단답형 질문을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만 꼽아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화의 부재입니다. 대화의 부재이고 또……

○남경필 위원 왜 대화의 부재가 됐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지난 1년 동안 저희 정부는 꾸준하게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지난봄에……

○남경필 위원 북한 쪽에서 대화를 안 받아들여서 그렇다 그 말씀이신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마 그렇게 된……

○남경필 위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서로의 정책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오해가 아마도 대화 단절에 일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남북한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협력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남경필 위원 예, 좋은 신념이십니다.

비핵 개방 3000을 주도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비핵을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뜻인데 비핵의 규정이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단계에 우리가, 지금 비핵화 진전 과정을 1단계·2단계·3단계로 보통 나눕니다. 지금은 불능화의 마지막 단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게 2단계라고 합니다마는 2단계에서 만약에 북한이 불능화에 잘 호응을 해 오면 지난 2007년 10월 10·3 합의에 이미 북한이 불능화를 완결짓겠다고 합의를 6자회담에서 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내놓은 단계적 제안과 관련돼서 1단계에 보면, 지금 1단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2단계.

○남경필 위원 그것은 6자회담의 2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맞습니다.

○남경필 위원 통일연구원이 내놓은 우리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3단계의 1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보면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쯤 이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요, 1단계 초입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한에 정말로 어떤 고위실무자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불비한 제도 문제를 서로 확인하고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남경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도를 만들려면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희 정부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남경필 위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비핵 개방 3000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만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때문에, 지금 남북 경색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태도로 이 비핵 개방 3000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한 가지 점은 있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이 모든 세세한 구체적인 자그마한 내용까지를 다 담은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큰 정책의 얼개이고 기둥이 있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앞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채워지는 것은 남북한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건 발전될 수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경필 위원 대화가 안 되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대화가?

우리가 그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먼저 손을 내밀면 훨씬 대화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대화를 저희들이 누차에 제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남경필 위원 '적극적', '진정성' 그 단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아까도……

○남경필 위원 6·15와 10·4의 이행 의지를 정신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행 의지를 밝히시는 것이 그러한 진정성을 담보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정신을 존중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경필 위원 내정자께서 후보자께서 2001년에 쓰신 '기로에 선 대북정책'이라는 글을 보면 대북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적 합의, 상대로부터의 호응, 주변국들의 지지 이 세 가지를 꼽으셨는데요. 그러면서 햇볕정책에서 이것이 모자랐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남경필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비핵 개방 3000을 기본으로 한 지금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특히 국내적 합의와 상대로부터의 호응 두 가지 면이 불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상대적 호응 문제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북한에게, 이거 뭐 풀어나가는 방법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정말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대화를 제의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남경필 위원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언제……

○남경필 위원 장관이 되면 추진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꽤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 중의 하나는 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위원 대통령께서 좀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 특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진언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의 북측의 대남 공세를 보면 마치 99년도의 연평해전 전과 닮아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려가 많은데요. 국지전 발발 가능성,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으로 우리가 먼저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좀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 그것이 지금 경제난과 맞물려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하여간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당장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장관으로서 임명되

면 정말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아까 후보자께서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주도해서 작성했다고 말씀하셨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말했던데 그건 잘못된 건가?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의 뉘앙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니다……

○박상천 위원 주도한 것은 맞고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런 의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이 비핵 개방 3000의 문제점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경제를 채택하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의 중단기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지금?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상천 위원 그런데 이 목표를 내세워 놓고 그 목표를 이루면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북 정책이,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하거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우리 중단기 목표인 비핵화와 개방경제 채택을 한 후에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중단기 목표를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북 정책 아닙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비핵화의 정도와 개방의 정도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핵화를 완벽하게 이루고 나서 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박상천 위원 그런데 단계적 지원이 있습디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상천 위원 불능화 단계, 지금 불능화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리고 검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세월에 핵 폐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불능화와 검증 문제는 이미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10·3 합의에 의해서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때 북한이……

○박상천 위원 지금 합의만 되면, 북한이 하겠다는 말만 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비핵 개방 3000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러니까 불능화 단계가 되면 이제 진정으로 비핵 개방 3000 판단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천 위원 잠깐, 똑같은 말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말은 지금 북한 핵 문제나 개방경제 채택 문제는 현실이, 실제가 북·미회담이나 6자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대로 이것을 이루어낼 독자적인, 물론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마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6자회담에 종속된 대북 정책이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말씀은 비핵 개방……

○박상천 위원 불능화가 됐건 핵 폐기가 됐건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자회담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북 정책도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가 달려 따라가는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대북 정책도 지금 핵 문제 해결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만 해결할 수는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6자회담하고 대북 정책 해결에 있어서는 남북 정책이 같이 병행할 수밖에……

○박상천 위원 아니, 6자회담과 상관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남북 관계가 6자회담 하나에만 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우리 독자적인 대북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건 내용이, 알맹이가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어쨌든……

○박상천 위원 비핵 개방 3000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대북 정책의 알맹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 지금 비핵 개방

3000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들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이 국제적인 6자회담을 통해서 같이 가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 3000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6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천 위원 그 3000에 들어가는 부분은, 3000달러가 돼도 경제 지원한다는 부분은 우리의 중단기 목표인 비핵화와 핵 폐기와 개방경제가 이루어질 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이 하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방이 이루어지면 하겠다 또는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개방과 비핵화도, 개방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북한이 어느 정도의 개방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용어에 있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개방하면 이런저런 플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상천 위원 아니, 단계적인 것은 두 가지밖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불능화하고 그다음에 핵 폐기예요. 둘 다 우리 독자적으로는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데 그것 말고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외부 요인에 상당 부분 매여 있는, 거의 대부분 매여 있는 이 단계적 목표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북 정책이 뭐냐 말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건 여러 가지 앞으로 남북 경협 문제라든지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왜 인도적 지원을 안 했습니까? 왜 식량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식량도 안 보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저희가 지난 3월부터 북한에 대해서 제의를 한 바 있고, 두 번이나 제의를 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을 제한시켜 놓은 마당에 그렇게 길게 빼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지금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이르기 전에는 기다린다는 건데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좋은 분들이 이런 정책을 구상해서 발표할 때에는 그 속셈이 있을 건데, 속셈은 뭡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혀 하기 어려운 이런 요소를 내놓고 북한이, 경제협력이나 어떤 다른 지원책이 거의 스톱 상태에 이르게 만든 그 속셈은 뭐냐는 말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속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로 남북한이 공존과 공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박상천 위원 공존과 공영으로 가기 위해서 대북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북 정책에 무슨 알맹이가 있어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대북 정책입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하고 지극히 이론적인, 무슨 논문 쓸 때 필요한 그런 대북 정책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남경필 위원도 질문합디다만 정책 전환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중단기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할 생각은 없냐 이 말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의 문제라든지 또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고민한 것 같지가 않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고민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후보자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委員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은 지난달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면 군사 대비태세 돌입 성명과 또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서해 북방한계선 등 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 성명이 나온 후여서 실행 여부가 주목되는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실제로 시행하리라고 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예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한다면 한반도에 안보 불안이 증대될 요인이 되는데, 이렇게 발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안보위기가 지금 점차 이렇게, 남북한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3차 서해대전 발발의 가능성 또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유지할 방안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여러 가지 서해대전 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긴장 고조에 대해서 남북대화 채널을 어떻게 복원하고 유지할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제의를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렇게 추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지하겠다' 그거 가지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지금 저희가……

○安商守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후보자로서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委員 그러면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또 이것을 유지하는 데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렇다면 어떤 식이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는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8일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10월 9일부터 24일 북한의 곡물 생산량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북한의 2008년 곡물 생산량이 도정 전 기준 약 421만t에 달하고, 또 곡물회계연도인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약 83만 6000t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이게 2009년 11월까지 5억 53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63만t을 북한에 긴급 지원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또 한국 측에 600억 상당의 옥수수 15만t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식량 부족 현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일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인도적인 지원도 지금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국가 대 국가의 형식으로서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 말하자면 당국과 당국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세계식량계획(WFP)이라든지 혹은 민간단체를 이용해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는 계속 당국과 당국의 대화로서 해 가지고 북한이 이것이 승낙했을 때만 지원하겠다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전향적인 검토'라는 뜻이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安商守 委員 그러면 유엔기구라든지 민간 기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제가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생각은 인도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시기와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유엔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기구를 통해서 식량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관계 긴장도 완화하고, 또 인도적 관점에서 같은 우리 민족끼리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지금 식량도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젖을 먹이는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히 식량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아사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식량 지원을 강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함으로써 다각적으로 북한과의 인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다음 이것이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자꾸 고집 부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만 취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원에 대한 방침과 계획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래서 식량과 의약품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전향적으로…… 아니, 다른 나라들도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나라가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같은 민족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좀 나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긴장도 완화시키고 또 대화의 채널도 다시 만들고 복원되고 이렇게 하면서 긴장 완화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현 후보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계에서 유명한 학자로서 계시다가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이런 통과의례를 겪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이 없애 주셔야 장관 업무 수행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부터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혹시 오토바이 같은 것 타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타지 않습니다.

○구상찬 위원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08년 7월 29일에 유진상가 앞에서 스티커를 하나 받았는데요, 범칙금 3만 원의 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9월 22일 날 납부하셨습니다.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헬멧을 쓰지 않을 때 발부하는 스티커입니다. 오토바이도 타지 않는 후보자에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에게 발부되는 스티커가 발부됐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직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교통사고 스티커가 잘못 발급된 것 같은 조그마한 일도 이렇게 세상에 다 알려지고 폭로되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현 후보자께서 장관에 지명된 뒤에 제주도의 땅 위장증여 의혹, 또 논문표절 의혹, 서울 염리동 주택매매가 축소신고 의혹 및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후보자께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청와대 수석비서관에 기용될 것이 유력하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도 그런 후보자군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을 아주 잘 하셨고요. 말하자면 언젠가 공직을 맡을 것이 예상돼 왔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그마한 사안에도 신중을 기하고 법적 도덕적 하자가 없도록 신변 관리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지는 사안을 보면 현 후보자께서는 공직에 대한 의욕은 많이 있으시지만 공직자의 자세라 그럴까 혹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신변을 정리할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리를 못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제주도 땅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현 내정자의 답변 내용은

본 위원이 들어봐도 의혹을 해소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땅의 경우 2006년 3월 2일 현 후보자의 부친께서 경영하시는 성일운수주식회사와 매매를 통해 현 내정자가 취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실제로 이는 매매를 가장해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문제의 땅이 성일운수주식회사 땅입니다.

후보자님 기억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현인규 씨가 누구시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제 제(弟)입니다. 동생입니다.

○구상찬 위원 후보자의 동생이시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이 땅을 현인규 씨, 동생과 같은 날 취득을 하셨더군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맞습니다.

○구상찬 위원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매매한 하루 뒤인 3월 3일 날 성일운수주식회사가 딴 사람 이름으로 이사변동 등기를 함으로써 현 내정자의 부친과 관계없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시죠,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2월……

○구상찬 위원 그런데 3월 3일 날 딴 사람이 등기이사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후보자의 부친은 석 달 뒤인 5월 9일에 가서야 성일운수의 보유주식 전체를 매각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2월 20일 날 대표이사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구상찬 위원 확인해 보시죠. 아닙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5월 9일 날에서야 성일운수의 보유주식 전체를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5월 9일까지는 현 내정자 부친의 회사였습니다. 3월 2일 현 내정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문제의 성일운수 땅은 매매가 아니고 당시 성일운수의 주인이었던 현 내정자의 부친께서 현 내정자에게 증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오해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2월 20일 날 저희 부친이 회사의 경영을 도와주던 직원들에게 회사를 넘겼습니다. 2월 2일 날 등기……

○구상찬 위원 후보자님, 정말 죄송한데요 마지막에 답변 자세하게 해 주셔서 국민들의 의혹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제가 딴 질문 있어서…… 죄송합니다.

또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보면요 현 내정자께서 남북한의 통일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연 현 후보자께서 통일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논문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를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렇다 할 업적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또 현 내정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일본과 한국 간의 국방비에 관한 것이지 통일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현 내정자께서 18년간 발표한 총 32편의 논문을 다 살펴보니까 '한국의 21세기 외교안보전략', '동북아 군사력의 재평가', '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념과 쟁점', '미일 간 산업·군사기술 마찰 실태와 협력전망' 등 대부분이 국방과 안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맞으시죠, 후보자님?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제가 학자로서……

○구상찬 위원 죄송합니다만 답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다 마쳐야 되니까.

또 본 위원이 외교·통일·안보 관련 학자분들에게 여쭤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 내정자의 고매한 인격과 학술적 능력에 찬사를 많이 보내셨습니다. 또 적이 없고 또 영국신사 이런 좋은 분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통일 전문가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바꿔 보면 "냉면 잘하는 집에 가서 우동을 시켜 먹는 그런 격이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현 내정자께서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를 찾아보

니까 통일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논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 내정자께서 1997년 12월 동아시아 연구논집에서 발표한 '북한의 변화와 통일전망'이라는 논문에서 보면 "북한의 대외정책 측면에서 보면 구걸외교로 일관된 식량외교에 매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무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일종의 위협외교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구걸외교로 일관된 식량외교에 매달리면서"라는 표현은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쓰는 건데, 우리 통일부의 많은 주요업무 중에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2009년만 해도 쌀·비료 지원을 비롯한,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사업이 8088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통일부장관이 구걸외교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의 말씀인데요,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통일 문제의 전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정말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히 앞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현인택 후보자는 그동안 오늘 청문회를 받기 이전에 언론에서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논문 표절, 이중 논문 게재, 탈세, 자녀 위장전입 이렇게 해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기 내각 할 때 도덕성 결여로 자진사퇴한 남주홍 통일부장관내정자가 떠오릅니다. 중요한 통일부의 장관내정자들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는 분들로 임명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학자이기 때문에 논문과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학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서를 내고 변명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하는 것을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2006년 BK21 사업 신청 당시에 후보자의 연구실적으로 등록한 논문이 허위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두뇌한국, BK21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했지요? 그리고 3억 8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고 2012년까지는 20억을 추가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자료가 저기 나오는데, 지금부터 후보자가 BK21 신청 시 연구실적으로 등록한 2건의 논문을 잠깐 보여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 왼쪽의 논문은 2003년 9월 국제관계연구지에 실린 논문이고 또 오른쪽 논문은 2년 후인 2005년 전략 연구지에 실린 논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이미경 위원 왼편의 2003년 논문의 159페이지를 보면 영문 초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문 초록을 논문과 함께 학회지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문 초록의 내용이 오른편의 2005년 논문에 자기표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이 자기표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자기표절 과정에서 문단 사이에 한두 문장을 끼워 넣었지만 아라비아숫자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표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후보자는 총 5페이지에 걸친 논문을 자기표절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오른쪽 논문은 1단계 BK21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서 작성된 그러한 논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표절한 것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명자료를 통해서 '영문 초록을 다른 연구물에 인용한 것은 자기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그 말

씀을 좀 드릴까요?

○이미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제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기표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첫 번째 논문을 썼을 때 앱스트랙트(abstract), 즉 요약본과 같은 겁니다. 영어로 앞에 그 논문의 내용을……

○이미경 위원 자, 알아요. 잠깐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요약해서 써 달라고 해서……

○이미경 위원 잠깐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요약을 실은 거고요.

○이미경 위원 그런 얘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했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앱스트랙트를 인용한 것이다 하는 그런 출처를 밝혔어요? 밝히고 사용했어요? 아니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문의 일부가 아닙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은 논문 내용을……

○이미경 위원 그러면 개요가 논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학술진흥재단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표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는 고려대학에 있어서도 교원연구윤리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하고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이러저러한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 게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표절이 아니다, 꼭같은 초록을 실어 가지고는 그대로 영어로 내면서 거의 많은 문장들이 겹치는데도 자기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문제되는 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현인택 후보자가 BK21 사업 신청 시에 코리아포커스에 실린 '제2의 북한 핵 위기 : 합의냐, 파국이냐' 이런 제목의 영문 논문으로 번역된 것,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된 것을 자기 논문이라고 실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논문으로 실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돈 주고 번역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코리아포커스라는 것은 학술지로 별로 인정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논문을 여전히, 아까 말했던 왼쪽에 있던 그 논문을 그대로 국제교류재단이 번역해서 코리아포커스에 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자기 논문이다 하고 등록을 했는데 이것이 학자로서 양심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자기표절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표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미 언론에 나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이러한 학자로서의 부적합함, 공직자로서 더더구나 부적합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책에 대한 오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한 오해가 왜 생기느냐, 예를 들면 북이 6·15 선언이라든지 10·4 선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 정신은 인정한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오해를 불러온다면 오해이고 그다음에는 '이 정부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구나' 하고 문을 닫게 되는 원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북한하고 진정성을 갖고서 대화를 열어 보겠습니다.

그 점을 좀 믿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현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내정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제대로 개선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현인택 내정자가 지금 북한 관련해서 문제 발언 수두룩하게 했습니다. 이런 수두룩한 발언을 한 사람을 또 앉힌다, 이것이 대화를 앞으로 열어 나가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면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자격 문제에 있어서의 비

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현 내정자가 옳지 않은 내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녀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경위를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먼저 위장 전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오해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2001년도에 연구년을 가기 위해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마는 가면서…… 제가 그 전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 내용은 대충 아니까요. 하여간 그것은 잘못되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러니까 주민등록표기에 있어서 행정 편의로 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자체는 오기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범관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천과 여주의 24개 읍·면·동을 돌면서 의정보고회를 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남북관계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가 하는 여론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일절 대화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며 군사적 위협을 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절대 그렇다고 북한에 흔들리지 말라,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우리 안보관과 국가관도 다시 한번 바로 세워 주는 정부가 되어 달라 이런 여론이었는데 장관 후보자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제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과 지금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이점이 뭐냐고 질의를 했더니 남북대화의 협력 기조 하에서 포용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북핵 문제 해결 미흡과 국민적 합의 부족, 남남갈등 유발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이범관 위원 이런 답변을 보내신 것 맞지요?

본인도 이 중에서 남남갈등이 가장 큰 우리 남북관계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남남갈등이 불거지면 이것이 효율적인 대북 관계를 수립하는 데 큰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결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대결 정책을 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대결 정책을 쓴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지요? 이게 여러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아까 장관 후보자께서 잘 답변하셨는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남남갈등의 의견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북이 서로 정책을 오해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대결 정책이다, 대결되었다 이런 판단을 자꾸 해 가지고 더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18대 국회 개원 연설할 때도, 제가 적어 왔는데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행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개원 연설에서 말씀하셨다고.

자꾸 뭘 했냐, 뭘 했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무슨 큰 갈등이 있고 무슨 견해 차가 있는 것처

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직을 맡으시게 되면 분명한 방향을 정해서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세요, 어설프게 뭐 검토해 보겠다, 이러실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는 아까 안상수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방법을 따지지 말고 할 것은 확실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도 말이지요. 옥수수 5만t 준다고 그랬는데 거부해서 못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이, 내가 지역구 가서 얘기를 하니까 왜 인도적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었는데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하시고 또 남남갈등이 일어나는 반대편 의견도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화를 해서 좀더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우선 남남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북한과 대화도 이루어지고 6자회담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인, 다각적인 방법을 취해 보았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자꾸 또 중복적으로 말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10·4 선언하고 비핵 개방 3000 문제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10·4 선언문 가지고 왔어요, 이것. 여기 이행하라, 이행한다…… 보세요. 이것 가지고 금방 이행될 게 있는가. 이게 일종의 MOU 비슷한 겁니다. 여기 이것 지금 이행 안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 어떻게 이행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협의를 통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협의하러 나와야 이행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따른 지난 2007년 11월 6일 남북총리회담에서 한 게 있습니다. 개성공단 건설해서 이것을 더 확장하겠다고 했어요, 후에 이행 내용으로. 그런데 북한이 이것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답변을 하실 때 좀더 숙지를 해 가지고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애매모호한 얘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것은. 이래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조항 중에서 뭐는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런 식의 앞으로 대북관계나 남북정책, 통일정책이 나갔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과창조의모임의 문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현 위원 고맙습니다.

선진과창조모임의 문국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2005년 국제관계연구 제19호 거기 보니까 '고구려사는 한국의 고대사로서 자긍심을 갖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의외의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이었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중국이 동북공정 문제를 제기했을 때 비판적 입장에서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문국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5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의 고구려사를 편입하겠다 또 평양이 옛날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였으니까 평양과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을 사실상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 동북공정의 뜻이라고 인정하실 텐

데요. 요즘 북한의 중국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 광업권의 태반이 중국으로 이양이 됐고 나진-선봉 항구가 50년 중국 항구로 조차가 되고 지린과 나진 간의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에너지와 식량의 중국 의존도 증가 그리고 철도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데요.

이번 2월 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전격적으로 '북한은 앞으로 중국에 의존하겠다. 중국이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북한의 전 국영상점에서 중국상품을 배급하겠다'…… 이것이 교수님께서 원하시던 북한의 또 고구려사의 연결고리에서의 끝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상 못 했던 북한의 중국화가 너무나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먼저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구려사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중국화 문제는, 아주 심하게 중국화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문국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난 8년 동안 6자회담에서 보면 사실상 중국 주도로 맡겨 뒀던 것인데요. 특히 최근 1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두절됨으로써 북한은 하는 수 없이 중국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1월 13일 발언한 내용 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뭐였고 왜 그런 발언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됐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이시하라 신타로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직 과문한……

○문국현 위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는 1월 13일에 '북한은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북은 자연스럽게 붕괴되어서, 문명사회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북한의 중국 통합을 권장한다. 이것은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현 교수님이 반대하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새 정부가 반대하시지 않는 건가요? 왜 이시하라 신타로가 이런 망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지금 방금 기억이 났습니다마는 이시하라 신타로와 같은 발언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주 그 발언에 대해서 분개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것은 우리 정부와 우리 학계와 우리 정당들, 국회에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북한을 장기간 중국에 의존하게 해 놓고, 우리와의 국경선은 220㎞도 안 되지만 중국과의 국경선은 어떻게 보면 1000㎞가 넘는 그리고 바다까지 합하면 1500㎞가 되는 이 북한과 중국과의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지난 60년간의 경제·군사 이런 쪽에서의 특별한 관계를 뻔히 알면서 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완전히 방치해 놓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북한을 완전히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북한이 거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끝까지 대화를 제의할 것이고 그러나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으면 남북 간에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면 우선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조치를 이 분야의 학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하신 것이 지난 1개월 동안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어떻게……

○문국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개인적으로 보면 이시하라 신타로의 발언은 저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면 그 조치는 이따가 시간 날 때 또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오히려 거절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을 주도하신 분이 현 교수님 아니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문국현 위원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6·15와 10·4와 마찬가지로 양자가 합의를 보기 전까지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비핵 개방 3000을 만드심으로써, 주도하심으로써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까 오전 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북관계를 정말로 순항시키고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가자고 하는 큰 구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들어와서…… 대화의 테이블로 들어오지 않으면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의 진의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국현 위원 어제 다녀온 보스워드(Bosworth)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번 19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방북을 제안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제가 예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시면 2007년 10월 31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

○문국현 위원 바쁘시기 때문에……

한반도 전문가라든가 남북한 전문가라면 당연히 아셨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한일 관계라든가 국방 전문가시지 남북한이나 유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통일을 기원하면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오늘, 내정자 고생 많으십니다.

현인택 내정자가 통일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난 정부의 정동영 장관이나 이재정 장관도 통일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일 비전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내정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1998년에 나왔을 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했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때도 격렬하게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격렬하게 비판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 6월 햇볕정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정자가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마 북한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인 중요한 이유는 햇볕정책 같은 경우에 어떤 경로로든 현금이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퍼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대화에 여러 방법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난 정부처럼 막대한 현금을 퍼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퍼주기까지 포함해서 대화의 방법을 추진한다는 뜻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어떤 큰 원칙을 가지고 남북 간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을 가장 걱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답변에서 상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상호주의의 원조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상호주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鄭玉任 委員 상호주의의 원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를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하고 10·4 선언,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6·15 공동선언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정중히, 그냥 초청한 것도 아니고 정중히 초청했고요. 이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10·4 선언에 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LL에 대해서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고 그래서 실무회담까지 했는데 말은 공동어로구역인데 지금까지 북한 주장은 NLL을 인정하지도 않고 NLL 이남에만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어로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정자가 통일부장관이 된 후에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합의 정신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점을 포함해서 어쨌든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과 다양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6·15 선언, 10·4 선언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기본합의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7·4 공동성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합의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 민족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가장 정치색이 덜 들어간 합의문은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합의문으로 보면 역시 남북기본합의서가 아주 여러 가지 남북의 신뢰 구축을 조목조목 달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이 기본합의문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임동원 전 장관도 관여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그런 것으로……

○鄭玉任 委員 제 기억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비핵이라는 것은 동시 또 단계적으로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비핵 개방 3000을 만든 주역 중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이미 중유 지원도 하고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고 또 연료봉에 대해서도 외교부 관계자들이 올라가서 가격을 타진한 바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또 한 가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개성공단이라든지 경제협력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협력의 강도와 빈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12월 1일 북한이 여러 가지 중단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노동자가 수천 명이나 더 늘어났지요?

이명박 정부, 특히 앞으로 통일부장관이 되신다면 개성공단의 활성화와 경협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남북대화가 정말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 개성공단이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북 경제협력을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얘기를 한다면 사실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올해도 1조 5000억 원이나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에 미온적이다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와서 기존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정리하자면 '비핵 개방 3000의 기본 원칙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단계 단계에 따라 경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고, 그러나 대화를 위해서 지난 정부처럼 현금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무조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퍼주지는 않겠고 원칙을 고수하겠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상생 공영의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현인택 내정자의 기본 입장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큰 틀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정자의 역량에 대한 질의였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도덕성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특히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자기 표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자기 표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문건도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장관 청문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행할 공직자로서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몸가짐을 더 무겁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등록 건과 관련해서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는 제가 행정적인 답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니고요.

다만 제가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편의상 주소를 한 50일간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다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그 전입의 목적이 굉장히 커다란 재산상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해가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래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호칭을 내정자가 아니고 후보자로 이렇게 통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식 위원 한나라당 이춘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 체제보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북한의 혁명 1세대 또 현 지도부가 계속적으로 북한의 리더십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체제가 보장되었습니다. 실지로 독일은 이런 개혁 개방이 없었기 때문에 동독이 흡수통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체제보장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핵무기를 가지고는 이런 체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소득이 3000불이 되어야만 우리 한국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핵 개방 3000이 한국과 북한의 긴장완화, 관계개선 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중국 일본 이런 모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것인데 이것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또 중국에서도 이해를 잘못하고 한국에 있는 일부 분들도 이것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중국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북한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정책이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그와 정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한반도에서 공영하자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누이 이 문제가 서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해서 북한에 대해서 진의를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우리 진의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닫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의 구상을 갖고 한반도의 미래와 장래를 서로 논의하자 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의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그리고 기조연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 핵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미국 CIA의 파네타 국장도 핵무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전번에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미국이 이렇게 공식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한국도 핵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공조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전제하에서 미국이 만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에 한국에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그럴 경우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현재로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마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정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적절하게 언급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이춘식 위원 그러나 그 대비책은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남북대화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좌파정부 10년에서 우파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경색되고 있는 원인이 과거 10년간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측의 대북강경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우리 강경책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경책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조정기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마 조정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춘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보면 동아일보에 속초 고성 이런 데서 재개를 해 달라는 그런 광고가 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후보자께서는 북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우리가 재개할 수 있다고 보는지, 북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간에 우리 금강산 문제는 지난 금강산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라든가 또 신변안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해준다면 하시라도 금강산문제는 재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민주당 신낙균 위원입니다.

남북관계가 매우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현인택 후보께서는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문제들만도 매우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종류도 많고, 질에도 문제가 많아서 언론들이 '의혹 사슬에 엮였다, 거론하기도 숨찰 정도의 긴 리스트다, 부정의혹의 종합백화점, 양파'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와 관련해서는 '반통일론자, 통일부 폐지론자' 오전에 부정을 하셨습니다만 인정하겠습니다. 적어도 국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통일 문제에는 비전문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 후보의 도덕성은 국무위원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현 후보가 표출하신 통일 관련 문건들도 통일부장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우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오바마 내각에서 톰 대슐 보건후생부장관이 탈세 논란으로 사퇴했고, 또 낸시 킬퍼가 과태료 미납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오바마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과오를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정말로 깊은 채찍, 잘하라는 충고·조언으로 알고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오가 전혀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현 후보께서 현재 통일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라고 그럴까,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통일부는 역시 본연의 업무가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켜서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특히 저는 청소년의 통일교육 이런 문제도……

○신낙균 위원 그 정도, 저는 시급한 과제 하나 둘을 거론하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현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낙균 위원 아까 오전의 인사말씀에서는 그동안에 변화와 진전은 있었다고 하셨고, 그 진전을 계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전이 아니라 퇴행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매우 위험하다는 상황까지 오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 이 경색국면에서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역시 대화의 부재라고 봅니다.

○신낙균 위원 대화의 부재라고 보시고……

예, 물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대북정책의 핵심정책으로 보는 이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입안자라고 하시니까, 또 6·15, 10·4 공동선언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는 큰 원인이 아닌가……

대북 문제는 정해진 상대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가 조평통 성명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다루시는 비핵 개방 3000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죽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어떤 큰 구상, 이것은 하나의 큰 틀이고 얼개입니다. 이 안에 몇 가지의 큰 틀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신낙균 위원 오전의 말씀을 반복하신다면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핵 자체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그런 진전이 있을 때 북한을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오전에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대화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조건없이 대화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미 조건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건없이 대화한다고 하고 그런 것에도 모순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비핵은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 후보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 적합하냐 이런 얘기였고 그렇다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브란트는 불가피한 것에 대한 인정을 실천했습니다. 독일통일을 추구하면서 상호 체제를 인정하면서 교류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통일독일이 가능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핵 개방 3000은 폐기 또는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신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간, 저는 큰 틀에서 그것이 남북의 상생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남북이 한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신낙균 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6·15, 10·4공동선언, 그것 정신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행한다는 뜻은 아직 밝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조평통 선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모든 합의사항은 무효화한다 그랬고 우리 통일부의 대변인 논평은 남북 간의 합의는 쌍방 합의이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통일부 논평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 관련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북한이 얘기한 것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우리 후보께서는 이런 것 기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을 더 쓸 수 있나요?

○위원장 박진 예, 1분 지금 더 쓰셨……

○신낙균 위원 "남북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재평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한 것은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남북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하시겠죠?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철저히 재평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상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상에 있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것을 상실하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촉박하게 지나가서 추가 질문을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려면 하시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하여간 지금 6·15공동선언, 10·4합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위원 현인택 내정자인가, 후보자인가? 나는 내정자인 줄 알았더니 또 위원장이 후보자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하여간에 수고 많아요.

최근에 우리 현인택 내정자에 관한 언론보도는 본인이 다 보셨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다 봤습니다.

○정몽준 위원 그래서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 그런 것 이렇게 보면……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여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그래서 우리 현인택 내정자, 현인택 교수 하면 국제관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고결한 학자 이렇게 되었는데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갑자기 세속적인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착잡하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기분은 별로 안 좋지요? 얘기하셔도 돼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어려운 자리니까…… 조금전에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그러셨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정몽준 위원 글쎄, 그러한 기분으로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나도 생각을 하는데.

오늘 현인택 후보자가 앞에 말씀한 것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네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화해와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하자.' '장관 되면 북핵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랬는데 글쎄요, 그것은 현인택 후보자의 아주 진정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남북관계에서 핵문제가 지난 20년간 점점 많이 악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서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태, 비관적으로 표현하면 운명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우리 현인택 후보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북핵문제가 한국만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북한 핵문제는 시작한 지 20년 됐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정몽준 위원 그래서 20년 동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고, 우리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의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무책임한 생각, 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데서 오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우려인데, 현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희망을 갖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몽준 위원 지난 20년간 문제가 악화됐다는 것은 쉬운 사실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정몽준 위원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북한 핵문제가 지난 20년간 이렇게 나빠진 것은 우리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지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우리의 우방 미국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으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미국의 경우에 최근에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셨는데 부시 대통령 임기 초에 북한을 악의 축의 한 국가로 불렀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북한이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빠졌는데 전문가들이 부시 정부 내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물론 부시 정부도 그 이전에 클린턴 정부를 비판하면서 취임한 정부인데 끝에 가서는 클린턴 정부하고 똑같은 정책으로 다시 바뀌었다, 그런데 왜 바뀌었느냐 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일 큰 이유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하는 의견들인데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몽준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은 또 인도·파키스탄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파키스탄도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핵탄두를 한 500개를 보유한다 이런 전망이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인도·파키스탄에 핵탄두가 500개나 있는데 북한에 조잡한 핵무기가 5개, 6개 있다면 그것이 중국으로서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 그래서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하고 걱정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현재로서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도·파키스탄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인도·파키스탄 문제도 문제입니다마는 또 북한은 지금 6자회담을 통해서……

○정몽준 위원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지난 20년간 왜 이 문제가 더 악화됐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최소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현 후보자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고.

사실 우리 정부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후적으로 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께서 다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정의 책임자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또 발언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자세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려는 우리의 동맹, 우방 국가들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침 어느 신문을 보니까 외교부의 어느 현직 공무원께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는데 남북관계에 비유해서 우리를 갖다, 남한을 '매 맞는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느 가정에서 아주 못된 남편이 있어서 부인을 때리는데 부인이 허구한 날 매를 맞으면 나중에는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학적으로 돼서 남편이 나를 매일 때릴 때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군사적으로 불바다 발

언도 하고 최근에는 '짓뭉개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학적으로 또 패배주의적인 심정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도와주면서도 매를 맞는 처지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심정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후보자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몽준 위원 현인택 후보자가 그동안에 학교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장관후보자로서 바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잘 소화를 하셔야 하겠어요. 앞으로 잘 분발하도록……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현인택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학술 토론장에서 자주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하시는데 보니까 원칙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현 후보자께서도 아침에 모두발언에도 원칙을 많이 강조를 하시던데 제가 생각하기로 원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특히 민주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거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송민순 위원 그러한 민주사회의 핵심원칙에 대해서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정부 각료 임명에 대해서 북한에서 왈가왈부하는데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지요? 우리 각료 임명에 대해 북한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뭐, 글쎄, 그렇다고 봅니다.

○송민순 위원 그것은 우리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일이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과 국회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 소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피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아까도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주도를 하셨다. 그런데 비핵 개방 3000 이것은 상대가 있는 정책으로서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 정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면 정책이 되지만 상대가 있는 정책에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정책적 사산아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미 나왔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비핵 개방 3000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자한테 제가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핵 개방 3000은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과 그리고 2·13 합의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런데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의 어디에도 북한 보고 이렇게 개방하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과 다른 나라들, 우리도 포함하는 거겠지요,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경제협력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앞으로 평화체제를 만들고 한다는 그런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개방이라는 그런 말은, 개방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국제정치를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당시 소련이 개방·개혁, 즉 소련 말로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 이런 이야기가 유행을 했는데 그게 누가 한 말입니까?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를 주창한 사람이 누굽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학자로는 그 당시에 프리마코프입니다마는 고르바초프 시절에 했기 때문에……

○송민순 위원 프리마코프라는 브레인이 이야기한 걸 고르바초프 대통령, 당시 서기장이 주창을 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개혁이나 개방 이런 것은 개방을 하겠다는 주체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

게 유도하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외부에서 너 개방해라, 너 개혁해라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 후보께서 잘 아시는 국제정치사 보면 국제정치사에도 다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이 스스로 알아서 개방하고 개혁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는 지금이라도, 지금 정책적 사산아에 가까운 비핵 개방 3000을 비핵,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이 세 가지로 딱 이렇게 부러뜨려서 이야기를 하면 오전 내내 지금 후보자께서 설명하신 '진정한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오해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딱 불식시킬 수 있게 정책을 비핵, 관계 정상화, 경협 이렇게 이야기하면 6자회담에서 관계국들이 합의한 내용하고도 일치하고 또 이 정부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저도 중요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도 부합하고 그 이후에 6·15 그다음에 10·4 선언에도 부합하니까, 그리고 아침에 후보자가 밝힌 소견하고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을 딱 이렇게 한마디 부러뜨려서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박진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송 위원님하고 상당히 생각이 비슷합니다. 개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은 정말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알아서 개방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체제 개방을 억지로 하겠다…… 이것 첫째, 체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억지로 또 시킬 수도 없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송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 지금 다 맞는 겁니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도 맞고 다자 간의 합의사항에도 맞고 또 우리가 국가 간의 관계상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맞으니까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이러한 것보다도 비핵,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이것으로 딱 바꿀 용의를 한번 그대로 깊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뭐든지 이렇게 전제조건이 듭니다.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뭘 하겠다, 남북 간에 협의 기반이 마련되면 뭘 하겠다,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모르지만 정부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전제나 과정보다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국민은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는 그걸 전제가 충족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하고 같아요, 제가 보면. 비가 오면 모내기를 하겠다……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안 오면? 비가 오면 모내기가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내기 안 하실 겁니까? 그건 비가 안 오면 정부는 우물을 파든지 강물을 끌어오든지 해서 물을 대서 모를 심게 하는 게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기다리는 정책을 이렇게 하는데, 현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는 게 아마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돼서 남북관계에 어떤 업적을 이루겠다 이런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식으로 그대로 하면 통일부가 통일부(Unification Ministry)가 아니라 기다리는 부(Waiting Ministry)가 되겠어요, Ministry of Waiting.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우물을 파고 강물을 끌어오는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지금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러나 보다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재개하고 다만 시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현실의 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민순 위원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득 위원 우리 장관후보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6·15 선언문 10·4 선언문의 남측의 불이행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분, 또 이 자리에서도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이 남측의 원인이다 이런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선언문입니다, 합의문이 아니고요. 비즈니스로 말하면 MOU하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의향서를 먼저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의향서에 입각해서 합의문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 책임이 따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가 다 합의문이 아니고 선언문입니다. 이행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 6·15 남북선언문도 보면 아시다시피 통일방식도, 길게 안 하겠습니다. 남측, 북측 통일방식도 비슷하니까 논의해 나가자, 무슨 경제협력을 위해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자, 두드러지게 구체적으로 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적절한 시기에 답방한다 이것은 두드러지게 돼 있고요.

10·4 합의문도 보면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읽겠습니다.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기로 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민족 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한다, 뭐 이렇습니다.

신의주를 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기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단지를 건설하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한다, 이렇게 '협력하기로 한다, 개설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이상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득 위원 그래서 합의문을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이행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이 선언문을 합의 이행하도록 정신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데요. 저는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겠습니다.

○이상득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큰 정신, 틀이 지금 선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또 합의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만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득 위원 그런데 이 국회에서조차 이것이 우리 책임이고 이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국민이 오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서 어떻든, 지금 송민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화를 안 하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을 무조건 해라, 안 하는데 대화를 안 한다, 그래서 책임이 우리 남한 측에 있는 것 같이, 경색된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 같이 전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통일부에서 책임을 지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리고 다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좀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새로운 책임이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 대화' 하시는데 대화를 이끌어내실 만한 방법을 여기에서 당장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이 긴장 완화를, 경색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언문과 합의문을 확실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상득 위원 그다음에, 저는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비핵이나 우리 송민순 전 장관님께서도 협력, 또 관계 개선, 협조, 이런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남한이 개방을 요구하는 겁니까? 개방이 되면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이 되면, 점차 북한이 개방이 되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이 되어 가면 그에 상응해서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이대로 두더라도 검토하시겠다니까 표현방법은, 햇볕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뭐 공존 평화겠지요. 비핵, 북핵 불용이 목적이 될 수가 있지요.

○이상득 위원 햇볕정책은 저는 개방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상득 위원 햇볕정책은 햇볕을 비추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원칙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 개방 3000, 표현에 맞게 검토하신다니까 저는 그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양 선언문이 이것은 이행할 수 없는 어려운 선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합의에서 우리가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부산 중구·동구의 정의화 위원입니다.

우리 현인택 후보자, 제가 이 인사청문을 앞두고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현인택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많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소명은 통일인데요, 이 통일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우리 남북 간에서나 국제간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현인택 후보자께서 이제 학자로서 학문을 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입장을 떠나서 장관이 되시면 일을 꼭 성사시켜 내겠다, 대화도 꼭 이뤄내겠다, 신뢰 구축도 꼭 해 내겠다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만들어 내는 CEO의 자세를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18대 국회 들어와서 통일상임위를 하면서 그렇게 가면 경색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걱정을 내심 해 왔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우리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문을 쭉 해 오셨고 그리고 인수위원회에도 관계를 하셨고 아마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또 쭉 봐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해결책은 연구가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청와대와 통일부 간에 여러 가지 혼선은 좀 줄어들겠다 이런 기대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오늘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의 발단은 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거두절미해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내세우고 그것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는 북측의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보지만 그 초기에 우리 정부로서도 그것이 오해다, 우리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오늘 후보자께서 얘기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전향적인 설득이 가능했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좀 소극적인 대처를 한 결과, 결국 그 오해가 더 심화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 현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아마 남북관계가 더 결단날 것이다 이런 협박성 발언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사자로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대한 큰 오해에서 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화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송민순 위원님과 이상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방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개방에 대한 굉장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방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알면서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후보자께서 잘 감안하셔서 새로운…… 새롭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비핵 개방 3000보다는 상생과 공영, 이것이 좀더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더 많이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지난 2002년에 통일에 관련된 후보자의 몇 가지 발언을 보면 과연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통일부장관으로서 통일관이 과연 무언가 하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통일관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우리 헌법 정신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일에 관해서 정말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또 그것이 남북한의 경제공동체라든지 행복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한이 공존과 공영을 할 수 있는 바탕의 통일, 이것이 저는 앞으로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봅니다.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표현은 제가 쓴 일은 없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렇지요. 그건 오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오해입니다.

○정의화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얘기를, 더더구나 학자로서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오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하셨고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모든 것을 의연하게, 차근하게, 차분차분 그렇게 해결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늘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북한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라가 과연 이 지구상에 누구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북한당국이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마냥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좀더,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던 그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두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식량지원, 비료지원 같은 것입니다. 누누이 WFP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서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분배의 투명성을 보아가면서 하면 될 것을 아예 하지 않을 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비료를 많이 주지 못해서 북한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능동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지난 1년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의를 해 왔습니다. 식량도 제공하겠다고 했고 두 번이나 저희들이 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거절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그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5초 남았기 때문에. 제가 1분 더 쓸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자세를 조금 바꾸십시오. 그 자세가 1년간 돼 왔습니다. 이 경색의 원인제공에 우리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생각의 전환을, 의식의 전환을 바라고요.

의료지원도 그동안 보면 민간에 주로 의존했거든요. 이것도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에 병원 지어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뭘 해 주겠다, 아까 2조 5000억의 예산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런 것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한에서도 보다 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테이블에 나와서 현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진지하게, 단순히 '10·4 선언을 그대로 이행하라.' 그것은 저는 사실 조금 억지가 있다고 봅니다. 나와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북한이 되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가 1차 질의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민주당의 박선숙입니다.

오전 첫 질의하셨던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 질의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사퇴하겠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따가운 충고와 조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의혹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신 후보자께서 청문회 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위증죄로 고발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니와 만약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로 고발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청문회는 두 가지로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이렇게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과 같이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 1년간 경색되어 왔고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경색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에 관해서 계속 부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왔던 후보자 그리고 또 하나의 남북 관계 경색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일종의 남북 관계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데 주로 역할을 하셨던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후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서, 그리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덕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후보자께서 가족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으셨어요. 1970년 17살 때부터 대학교 3학년, 군복무 중 그리고 최근 2006년도에 매입한 제주도의 땅도 제가 보기에는 증여라고 보는데 앞에 대답하신 것처럼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세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 3월 2일자로 450㎡와 165㎡, 성일운수 소유의 토지가 2개로 대지분할됩니다. 그래서 분할된 그날로 후보자와 후보자의 동생에게 분할 매각되는데요.

서류상으로 매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후보자는 이 땅을 누구한테 사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저희 부친이……

○박선숙 위원 긴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드리고요, 이 땅을 누구한테 사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성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성일운수를……

○박선숙 위원 성일운수 대표에게 사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성일운수의 대표는 3월 2일 당시까지는 후보자의 부친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고모 씨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2월에 후보자의 부친께서 갖고 있는 주식 일체를 공동대표였던 고모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고모 씨에게서 이 땅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도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후보자는 저 땅을 1억 4000만 원 상당에 샀다고 하시고 그래서 등록세 600만 원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친께서 성일운수라는 회사를, 저 토지 소유권을 포함한 회사를 얼마에 고모 씨라는 현 대표에게 파셨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회사 매각에 관해서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박선숙 위원 이미 답변하셨어요. 이미 서면과 각종 언론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자료에 따르면 2억 1000만 원에 팔았답니다.

저 토지소유권을 포함한 성일운수를 2억 1000만 원에 후보자의 부친께서 고모 대표께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액면가로 팔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주식액면가가 1만 원이고 총액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2억 1000만 원에 고모 대표는 저 땅을 사 가지고 등기가 아직 되지도 않은 3월 2일에 후보자에게 1억 3000만 원에 토지를 팔고 그 3배에 해당되는 땅을 동생에게 또 팔았습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3배에 해당되니까 4억 5000만 원을 동생에게 받은 것으로 되지요.

그러면 고모 대표는 후보자의 부친께 2억 1000만 원 주고 성일운수를 사셔서 후보자의 동생과 후보자께 그 땅을 5억에 판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제3자를 개입시킨 불법 증여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매매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설명 더 드릴게요. 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법 제44조제2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자나 양도자의 배우자등' 여기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제44조제1항에 들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재산을 양도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관계인을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를테면 성일운수의 공동대표였던 고모 씨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법상으로 3년 이내에 우리 후보자와 후보자의 동생께서는 그리고 후보자의 어머니께서도 이 땅을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시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내셔야지요. 그래서 편법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사실은 그것과 다르고요. 매매는 저의 부친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판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저의 부친이 같이 30년 동안 운영하던 직원들에 대해서, 그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를 할 경우에 그 직원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회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부친 나이가 89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타인에게 팔면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만을 받고 판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저 토지를 제가 사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그 회사를 양도를 해도 직원들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사달라고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타인에게 팔 경우에는 그 타인이, 그 토지와 그 회사가 쓰던 건물·사무실을 팔게 되면 그 타인은 그것을 당연히 자기가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게 되면 다른 자리에서 그것을, 시설비를 들여야 되고 땅을 사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운영경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정상적인 매매관계, 모든 대금을 다 받고 사고팔고 한 그런 관계로 보시면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생각하시거나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혹을 얘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부친이 회사를 넘기고 산 그런 관계는 정상적인 가격을 다 받고 팔고 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질의를, 답변을 하시느라고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委員長代理 黃震夏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해 주세요.

○박선숙 위원 아니, 저는 7분의 플러스 1분을 사용 못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아니요, 그것은 답변까지 포함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숙 위원 제가 마이크 없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자세히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서 정상참작의 변명만 하고 계시는데 법은 사실관계만을 답하는 것입니다.

○정진석 위원 자, 우리 룰을 지킵시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정진석 위원입니다.

제주도 땅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주도 땅 매매 과정에서 세금 탈루하신 적 있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 땅 매매 과정이 모두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정당하게 이루어졌

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주도 부지 매매 과정과 관련하여 탈법과 부정한 사실, 정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모든 공적·도덕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좋습니다.

다음,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 후보자께서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주도적으로 입안하신 입장이시기 때문에…… 자,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결정책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닙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지요. 흡수통일정책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닙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지요. 자, 그럼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 대규모로 포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일종의 마셜 플랜과 같은 그러한 정책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큰 틀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음을 묻겠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의 전제 조건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닙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면 비핵화가 전제 조건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면 결국 비핵화를 과정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어떤 병행 정책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종의 상호주의 같은 것을 복원했을 뿐 사실상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의 대북사업을, 그 정신을 사실상 모두 계승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뭐 큰, 포용……

○정진석 위원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포용정책입니다.

○정진석 위원 대북 포괄정책, 포용정책을 큰 틀에서는 다 계승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정진석 위원 실제로 지금 정치적인 대화, 정부 간의 대화는 교착되고 단절됐지만 남북 간에는 지금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남북 간의 경제교류, 북한이 필요한 경제교류는 오히려 김대중 정부보다도, 노무현 정부보다도 지난해 이명박 정부에서 더 증대되었어요. 작년도 남북교역은 07년도에 비해서 1.2% 증가, 품목수도 852건이 늘었어요. 아, 교역 참여업체 수가 335개가 늘었습니다. 약 80%가 증가했고, 품목수도 7건이 증가했고 교역건수가 30.3%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잘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북한을 만나서 대북정책에서 생긴 오해를 푸시겠다고 했는데, 이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응은 다소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오해를 낳거나 이해가 부족하게 하거나 하면 명쾌한 정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외적인 홍보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현인택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 명쾌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결코 대결정책이 아니며 흡수통일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그리고 상생·공영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지금 조평통에서 말이지요, 우리 현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악질 분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나 보니까 오랜 기간 상아탑에 몸담고 계신 그런 선한 인상이신데 상당한 거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 내부에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매우 불행하게도 통일부의 성명보다 조평통의 성명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진석 위원 이른바 친북 세력들이 우리 사회 내부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의 성패는요,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국민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되고 또 내부의 친북 세력들을 상대해야 하는 공동의 부담, 이중 부담을 안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사회 내부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러한 방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말로 진솔하게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열심히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진위를 파악하고 또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다시 한번 비핵 개방 3000 정책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자꾸 강조되는 것이, 유연성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대북정책의 수장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중심에서 만든 장본인인 우리 현 후보자가 책임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자기가 필요하면 대화에 응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대화의 단절 요인이 어떤 통일부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내를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고, 또 이번에 새로 정립되는 남북관계 대화의 어떤 시스템은 향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계속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현인택 후보자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많이 했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가장 잘 아시리라 이렇게 보고, 또 대북관계 전문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장관을 하기에는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그 사이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오늘 현 후보자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아니면 뭐 시간이 잘 없으면 말이지요,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좀 드리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리고 이 어려울 때 통일부장관이 되시면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이 많고, 오늘 비핵 개방 3000이 제일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선거 때 나온 얘기지요, 비핵 개방 3000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용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비핵이라는 얘기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면 남북관계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시작할 때 남북관계에다가 인도주의를 연계시켰지요? 이산가족 만나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지요,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상당 기간 남북관계가 진전이 안 됐던 거지요. 말하자면 인도주의적인 면을 연계시켜도 진척이 안 됐는데 비핵 문제가 남북관계에 연계되면 남북관계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 후보자께서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남북 관계가 다소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비핵과는 어느 정도 연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지, 아니면 남북 관계를 위해서 비핵 분야는 6자회담에 맡긴다든지 북·미 간 회담으로 맡긴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하여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편으로 반드시 또 이루어야 될 것이 비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핵을 해

야 한반도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울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남북대화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정말로 병행해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면 남북 관계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얘기 많이 나온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는 김하중 장관께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만나서 얘기해 보자……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우리 입장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국민도 이명박 정부가 과연 남북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때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제2항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저희 정부에서 특히 2단계 남북연합의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남북연합의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6·15 선언에 대해서 특히 문제를 제기할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6·15 선언보다는 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소위 2차 방문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거지요.

○진영 위원 다음에 10·4 선언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 10·4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취해졌다고요. 그 한두 달간에 말이지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 중요한 후속조치가 뭐냐 하면 총리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진영 위원 그러니까 총리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총리회담의 국회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한나라당이 반대했지요.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가 없다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없어요. 현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현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아직 검토 안 하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개인적 생각도 지금 말씀을…… 개인적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개인의 저와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의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입장에 섰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후보자 때 이야기가 안 되면 장관 되시면 더 안 되더라고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없는 것처럼 가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문제 이것이 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지요. 어느 한편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업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데가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이 NLL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말이지요.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이런 부분의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냥 문구, 딱 말 한마디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는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전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북한과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그야말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영 위원 그래도 만나기 전에 우리 입장은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북한을 만나서 터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입장 정리를 확실히 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6자회담이 죽 비핵화를 했지요? 거의 많은 사람이 6자회담은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해서는 6자회담 말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말이지요. 그동안 진행된 6자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6자회담이 꽤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해결 못한 측면은 또 있습니다.

○진영 위원 6자회담이 진행된 바를 잘 좀 보세요. 그래서 왜 그것이……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해결됐어야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영 위원 왜 안 됐는지를 정확히 규명해서 이런 부분은 미국 정부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좀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현 후보자님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신이예요, 인간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인간입니다.

○송영선 위원 그럼 인간이면 인간은 누구든지 과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가 없는 것 아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왜 아침부터 안 하시고 오후가 되어서 하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실망스럽고 지금부터 질의에는 좀 떳떳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설명 부분을 다 넣을 테니까 간단히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이 이상으로 답을 하실 경우에 제 시간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답변을 자르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공화당 저드 그레그 의원 아시지요? 최근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상무부장관 제의를 받았는데 이분이 14년 전에 상무부를 없애려고 상무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관 제의가 오자 장관이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그러자 공화당 같은 당 의원이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을 없애려고 했으나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면 아예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낫다'라고 충고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인수위원 시절에 통일부 폐지가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시지 말고 한때 통일부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기에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되어서 책임지고 개혁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송영선 위원 제가 '예' 아니면 자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긴 설명은 필요 없고요.

덧붙여서 2월 9일 날 현재 아직 후보자 신분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송영선 위원 그런데 방금 진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10·4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 북한의 대응 방안이 뭐냐' 하니까 '후보자로 답변할 수 없다'고 해 놓고 후보자 신분으로 행정부처의 현 대변인을 통해 자기의 변을 내놓은 것은 월권 아닙니까? 이것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국회나 국민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떨 것인지 좀 고려를 하셨더라면 더 낫지 않을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20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체를 잘 모르면서 고민하는 것은 방향 없이 열심히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길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장학퀴즈도 아닙니다마는 북한사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서해 NLL 부근의 꽃게 조업하는 것이나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나 북한 어선, 관장하는 북한 기관 또 1년에 250억 이상 우리가 갖다 주는 해주 모래사업 관장하는 북한 기관이 어딥니까? '예, 아니오'로 답하라 했으니까 답 못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기관만 얘기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뭐 북한 수령경제 이런 것

구질구질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역량을 갖고 계시니까 북한사회를 피상적으로 보시지 말고 좀더 공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인민무력부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달러 벌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답변 중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왜? 북한이 우리와 정말 대화할 의도가 있다고 후보자님은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북한이……

○송영선 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아까 진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이 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10·4 선언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사업을 아무 조건 없이 해 준다고 할 때에 뛰어 나옵니다, 대화만이 아니라.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계속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정신 존중이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구체적인 8개 방안에 대한 이행을 요구합니다. 통일부는 이행하는 데 14조가 든다고 했고 현대연구소는 14조 9000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피상적인 수박 겉핥기의 숫자입니다.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 경제의 어려움 속에 국민 여러분들의 피 같은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이때까지 김정일이가 핵과 미사일 만드는 데 갖다 바쳤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된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이 여덟 가지를 다 이행하는 데 우리가 적극 찬성해야 되느냐고 왜 국민들에게 얘기를 못 합니까?

진정한 대화가 뭡니까? 대화만 소용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정말 우리와 상부상조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태도가 안 되어 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정부가 북과 약속한 것이라고 해서 다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통일부장관은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를 요구합니다', 단순하게 10·4 선언의 정신을 이해 못 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고 싶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대통령께서도 장관을 믿고 통일부를 맡기고, 국민들도 통일부장관을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유념이 아니고 두루뭉술 식으로 하니까, 오늘 좋은 이미지가 자꾸 두루뭉술 식으로 가니까 '소신이 없는 학자다. 과연 저분에게 통일부를 맡겨도 대통령 의지를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북한도 비핵화하기 위해 6자회담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몇 차례 하셨습니다. 진심입니까? 아니지요?

이게 진심이라면 후보자께서 2004년 논문에서는 '북한 핵 개발은 협상용이 아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북한은 핵을 가지려 할 것이다', 저는 이 논문에 전적 동감입니다.

6자회담이 계속되는 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핵화하기 위해서 6자회담에 나옵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현인택 후보님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의 논문에서 '자기의 소신이 확실한 분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명을 했는데 오늘 답변으로 볼 때는 소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 정책을, 지금까지 해 온 대북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명쾌하게 알려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국민에게 부담이고 우리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있고, 대화하려고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정말 신뢰성 가는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정말……

○송영선 위원 간단히, 어떻습니까? 그것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북한도……

○송영선 위원 그러면 자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에서 '비핵 개방 3000'을 '대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강은 일본말로 '오오스지(おおすじ)', '큰 힘줄'이라는 뜻입

니다. 그런데 또 다른 때는 '대단히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안이다', 2007년 12월 23일, 아까 '오오스지(おおすじ)'라고 얘기한 것은 올해 1월 20일, 이게 지금 상당히 상충되는 견해를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민순 위원님 의견이나 아니면 이상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구체화를 하시고 장관에 임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홍정욱 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홍정욱입니다.

저는 후보자의 학문적 소신, 존중합니다. 그러나 소신껏 외칠 수 있는 학자와 헌법적 소명을 이행하는 통일부장관에게 있어서 그 역할의 위중함이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아울러 후보자의 논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읽고 나온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해명 하지 마시고 당당한 소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일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정되신 이후에 견해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아까 오전에도 '한반도 평화와 군사 안보'라는 논문에서 분명히 '한반도 장래를 생각할 때 가장 영구적이고 탄탄한 평화의 도래는 같은 체제를 가진 두 국가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가 아니어도 별로 상관은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 '5개의 이론 중에 하나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

○홍정욱 위원 결론부에서…… 그 논문을 제가 끝까지 읽었습니다. 결론부에서 분명히 '상기 방안은 이루기 힘들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안이다'라고 주관적 입장을 표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남북한이 상호간에 규범과 문화 정체성을 같이 하게 되었을 때 영구 평화가 도래할 수 있고 그것이 꼭 통일의 형태가 아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어서 '민주정치를 가진 두 개의 다른 정권이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이론을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민주평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홍정욱 위원 예, 그 설명하는 부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론지점에서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그 이상 중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이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한 체제를 가진 두 개의 국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의견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차라리 그것이 학자의 소신이었고 지금은 헌법적 소명을 지닌 통일부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소신에서 벗어나더라도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공개적으로 밝혀 놓고 그것이 이론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기가 안 좋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 결론 부분에서도 역시 다섯 가지 이론을 죽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은, 통일론은……

(황진하 간사, 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인 제가 그 진의를 찾기 힘들면 주적인 김정일은 얼마나 그 진의를 찾기가 힘들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후보자님의 북한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997년 계간 '사상'에서 '북한 정권은 그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결국은 대명천지에 같이 할 수 없는 정권이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 결론부에서는 '북한의 위기는 이제 시작되었고 불행히도 비극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결론도 내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북한이 제대로 하지

않는 한,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은 97년에 그 사태를 보고 쓴 것이기는 하지만, 그다음 맥락을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맥락은 지금 시중에 여러 가지 북한 붕괴론이 나와 있는데 북한은 그렇게 붕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읽으셔서 아시지요?

○홍정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맥락을 읽었습니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계속해서 남북이 모두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부르고 언젠가는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홍정욱 위원 대명천지에 같이 할 수 없는 정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홍정욱 위원 그 유사한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2002년 논문 '중장기 주요 안보 현안 및 대처 방안'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하셨지요? 군사적 제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

○홍정욱 위원 2003년 월간조선 대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도 높은 군사 제재도 옵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논문에서도 '실질적 대북 제재의 카드로 군사적 제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우리가 군사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홍정욱 위원 아니, 맥락을 정확히 읽어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우리에게 돌아올 피해가 별로 없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누차 미국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소개를 한 것이고 저는……

○홍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남북 문제를 해결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군사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것은 읽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리고 그게 저의 소신도 아닙니다.

○홍정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오늘 진정성 말씀 하시고 우리의 진의를 전달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논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입장,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을 언급하신 분이 과연 우리 실용정부의 실용외교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분이신가, 2년차를 맞이해서 날아올라야 하는 우리의 모든 정책에 혹시나 족쇄가 되시지 않을까, 그게 제가 책임 여당의 위원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6자회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6자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고 그랬는데 2003년 전략연구에서 보면 6자회담은 우리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적합한 회담 형식을 내놓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탄생한 회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21세기 외교안보전략을 보면 4자회담 이상의 한반도 문제 국제화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다자적 방식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요한 접근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6자회담의 실효성을 완전히 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말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6자회담이고 우리 온 국민이 6자회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주무부처는 아니라도 관련 부처 장관께서 과거에 누차에 걸쳐 6자회담이 불용하다, 효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홍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가 거의 지난 20년을 진전을 해 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문제 해결은 저는 지금도 남

북 둘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북핵 문제 진전의 현실을 보면 그것은 이상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남북 당사자가 문제 해결하는 것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지금의 우리 남북한 현실, 지금의 국제적 현실로 봐서는 그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지금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2자회담을 걸쳐서 4자회담으로 갔다가 잠시 3자가 되었다가 6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6개국이 이 문제를 놓고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자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이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그런 국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도 응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6자회담이 어쨌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테이블에서 아직은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장관후보자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받으신 내용이고 답변을 주신 내용이지만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분명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는 좌파정부였다고 그러고 햇볕정책하에서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한 부분이 많았다,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왔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저는 북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하고요.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목적과 수단이 혼동이 되어서 남남갈등도 있었고, 또 국민적 합의도 없었다 그런 점들을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黃震夏 委員 지금 그런 말씀을 망라해서 상호주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 정부 때 계속 지적받아 온 사항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적을 받았던 가장 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대북정책을 만든 것이, 주도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핵 개방 3000입니다. 그것은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던 대북정책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대북정책의 공약으로 내놓은 비핵 개방 3000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대북정책입니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은 바로 지난 정부 때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비핵 개방 3000을 내놓은 것이고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되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자꾸 지적을 하고 과거처럼 안 한다고 지적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것은 수용할 수도 있지만 수용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원칙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비핵 개방 3000 중에서 비핵은 우리 혼자 하는 것입니까?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틀이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비핵 개방 3000에서 비핵 부분은 6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국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중에서 지금 북한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나라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미국이 반대합니까, 이 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반대하지 않습니다.

○黃震夏 委員 중국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중국도 적극적으

로……

○黃震夏 委員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니까 6자회담 당사국이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것이고 북한 자체도 비핵화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니까 비핵화를 우리의 목표로 둔 것은 국제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비핵화에 적극 가담하겠다, 이런 표시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두 번째, 개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개방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난이라든지 또 굶어죽는 사람을 구해낼 수 없다는 게 판단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최소한 사회주의식 개방이라든지 중국식으로라도 개방을 해야 북한이 현재와 같은 경제난국에서부터, 또 도탄 상태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의로 생각하는, 그래서 적극 권고하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개방이라는 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우리가 혼자 주장하는 것 아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비핵은 국제화 노력을 통해서, 또 개방은 북한이 살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의로 북한에게 적극 권고하거나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 3000불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돕겠다, 우리가 3000불을 다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하고 또 권고도 하고 해서 3000불에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게 3000불 약속인데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선의의 대북정책이지 이것이 강경정책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절대 강경정책은 아닙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것을 마치 강경정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누구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여기에서 비핵 개방 3000 되었다, 고칠 용의 없느냐…… 그렇게 좋은 내용과 선의를 가지고 있는데 왜 고쳐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거나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 진정성이 우리 국내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진정성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성, 진정성 했는데 진정성을 북한에 알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하여간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우리 남한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말이 나빠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 김대중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햇볕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반응을 보이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 이 말이 잘못되어 가지고 북한이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만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습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경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불리하면 경색으로 갑니다. 북한 자체가 불편하면 경색을 택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黃震夏 委員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 새로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면서 소위들 얘기하는 통미봉남을 하겠다는 그러한 그들의 전술에 의해서 우리 남한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

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통미봉남은 절대 적절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미가 또 논의를 할 것이고 남북도 물론 앞으로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북한도 미국하고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관계에서 보면 통미봉남은 적절치 않은, 그리고 실현되기 어려운 생각이라고 봅니다.

○黃震夏 委員 물론 그렇지만 현재 북한이 그러한 전술을 가지고 남한과의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지 않아야 할 텐데 무슨 이유를 달기는 어려우니까 6·15 선언이라든지 10·4 선언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아니면 비핵 개방 3000이 완전히 적대시 정책이다, 이런 이유를 달아서 대화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북한에게 비핵 개방 3000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 이것을, 진정성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그에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제가 장관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진정성, 진정성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게 알리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게 알리고 러시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알리고 또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 쪽에 알리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촉구도 하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노력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렇게 해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은……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앞서서 증인신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일 날 제1차 회의에서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증인명단과 약력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 분 중에 한 분인 이경숙 증인은 지금 현재 2월 3일부터 16일까지 유네스코 주관 한국교사 일본초청연수단 총단장 자격으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신 홍두승 증인에 대해서는 입법조사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본인 확인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홍두승 교수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두승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현인택)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2월 9일

증 인 홍두승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거나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요구 없으시죠?

○증인 홍두승 예.

○위원장 박진 별다른 요구 없으시면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은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박선영 위원님께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야 간사 협의의 결과대로 그 외에 증인 신문을 하실 위원님은 증인 출석을 요구한 교섭단체가 아닌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한 분씩 각각 5분간 질의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박선영 위원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신문에 앞서서 먼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원래 증인 채택을 세 분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과 현재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맡고 있는 박재완 수석입니다.

그런데 박재완 청와대 수석은 청와대 수석이라는 이유로 여당이 반대해서 애초에 채택이 되지 못했고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18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오늘처럼 모든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취재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기대와 궁금증과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도 아니고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일본에서 이렇게 국회의 출석요구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그런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바쁜 시간에도 나와 주신 홍두승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는 모두 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요?

○증인 홍두승 외교통일안보분과의 구성은 여기 위원장으로 앉아 계신 박진 위원께서 간사로 계셨고 박진 위원을 포함에서 옆에 계신 현인택 교수하고 저하고 3인의 인수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7인의 전문위원이있었고 그리고 실무위원……

○박선영 위원 예, 됐습니다.

세 분이 계셨지요?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세 분의 역할은 누가 주연이고, 나머지 분은 조연이고 그렇습니까?

간사가 주로 다 결정하고 나머지 두 분은 그냥 듣고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 분이 공히 함께 참여를 하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증인 홍두승 아무래도 아침에 인수위원회의 간사회의가 있어서 간사께서 참여를 하셔서 인수위원회 전체의 분위기와 그날의 그 진행 사항을 회의를 통해서 인지한 이후에 돌아와서 3인의 인수위원이 그날 할 일과 또 내부적인 입장들 이런 것을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 3인의 공동 결정과 또 공동 논의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지요?

어느 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어느 분은 조연에 머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모두 공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겠지요?

○증인 홍두승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것은 전부 기관이나 부처하고 업무 협의를 한 내용에 불과하고 그 세 분이 내부적으로 논의한 회의록은 전혀 없습니다.

세 분이 논의하신 내부 자료는 회의록으로 기록을 안 하셨습니까?

○증인 홍두승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내용이, 지금 1년이 되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매일 매일의 일상이 하나의 기록으로 다 남아있을 겁니다.

○박선영 위원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출된 것은 통일부나 기타 기관하고 업무 협의를 한 내용만 지금 제출이 돼 있고 세 분께서 중점적으로 토론하신 내용은 없어서 부득이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택 후보자께서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당신께서는 통일부 폐지론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통일부 폐지론이 왜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주장을 하신 분은 현 내정자는 정말 아닙니까?

○증인 홍두승 저도 통일부 폐지론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외람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저희 인수위원 3인 간의 토의나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홍두승 예, 전혀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래서 위원장이 오늘 꼭 출석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장께서는 2008년 1월에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홍두승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홍두승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국회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통일부가 존치가 됐습니다. 맞지요?

○증인 홍두승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때 이경숙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규제개혁·혁신TF팀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 TF팀은 지금 세 분이 소속을 하셨던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증인 홍두승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도요, 아시다시피 2007년 12월 26일부터 해 가지고 2008년 2월 2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인수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활동의 대부분은 전반 1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여기의 요청을 받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가 된 것이 정확하게 1월 16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다시피 2007년 12월 26일에 인수위원회가 시작이 돼서 1월 16일에 그런 발표가 되자면 불과 3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중에 각 분과와 정확한 명칭이 아마, 제가 알기로……

○박선영 위원 혁신·규제개혁TF팀이요.

○증인 홍두승 예, 정부혁신·규제개혁TF(라고 돼 있습니다)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사실 개별 분과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데 골몰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또 그것은 저희한테 주어진 역할도 아니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가 어떻게 되든 통일부가 어떻게 되든 하는 것은 외교통일안보분과 업무의 소관이 아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장이셨던 분은 그 TF팀이 소관 외교통일안보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다,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게임으로 변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인택 후보자께서는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본인이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그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증인 홍두승 저희 분과에서 모두 24개의 국정과제를 도출해 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를 도출해 내는 과정은 그전에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되었던 사항들하고 각 부처 및 외청 그리고 관련된 산하기관들의 업무 청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검토를 해서 각 분과별로

과제를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인수위의 기획조정분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다시 추리는 작업을 거치고 다시 또 저희 외교통일안보분과로 넘어와서 또 검토를 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4개를 도출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거치는, 결국 말씀의 요지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홍두승 그대로 받았다기보다는 그것은 기초가 된 것입니다.

○박선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수위원회가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홍두승 예, 그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비핵 개방 3000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요새는 '상생·공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질문은 제가 학자이신 홍 교수님,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학자 홍두승 교수 분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비핵 개방 3000을 이 정부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상생·공영'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비핵 개방 3000이 실패한 정책 또는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한 정책 또는 계속하기 어려운 정책을 입안했던 분이 통일부장관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학자적인 양심으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증인 홍두승 기본 정신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사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인수위원회 기본 역할은 두 정부가 원활하게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도우는 도우미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그런 안들을 만들어 낸 것이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식으로 정부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다 실천 가능한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위원 좋습니다.

○증인 홍두승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기본 아이디어 바뀌지 않고 그러면 이름만 바꾸어서 포장만 달리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분 더 쓸 수 있지요? 고맙습니다.

기본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지금 비판이 거세니까 이름만 바꾸었고 포장만 달리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증인 홍두승 포장을 달리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요, 정책이라는 것이 이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또 필요하겠지요.

○박선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비핵 개방 3000 전략의 실행 단계로서 나들섬이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나왔지요? 그 나들섬은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가요?

○증인 홍두승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검토한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 그런 아이디어가 제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나들섬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박선영 위원 아니, 어느 분의 아이디어냐고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후보자의 아이디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증인 홍두승 저희가 자료를 검토를 할 때는 그 자료 끝에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괄호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선영 위원 비핵 개방 3000은 분명히 후보자의 아이디어였지요, 나들섬은요?

○증인 홍두승 예, 여러분들의……

○박선영 위원 문제가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증인 홍두승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마는, 또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박선영 위원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증인 홍두승 그 나들섬을 개발을 해서 남북이 공유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이디어로서는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위원 개성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개선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 햇볕정책과 똑같이 너무 지나치게 장밋빛 환상을 담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증인 홍두승 예, 검토는 충분히 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입니다.

이미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간사가 박진 위원이셨고, 현인택·홍두승 두 분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신 거지요?

○증인 홍두승 예.

○鄭玉任 委員 그런데 오늘 직접 박진 간사께 질문하면 되는데 왜 홍두승 교수까지 나오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왜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두승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이제 이왕 나오셨으니까, 당시 세 분이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박진 위원께서는 특히 외교 분야에 정통하시고 또 홍두승 교수께서는 국방 분야를 주로 담당하셨을 거 같고, 그렇다면 현인택 후보께서 통일 분야를 주로 담당하면서 주요 정책을 인수위에서 만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말씀이지요, 비핵 개방 3000을 주도하는데 한 분이 현인택 교수셨고 그런데 통일부 업무에 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만드는데 중요 역할을 한 역할자가 자신의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 부처를 폐지하려고 주장했다라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증인 홍두승 물론 안 맞지요.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이왕 또 질문을 한 김에, 현인택 후보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역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두승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답변을 아주 시원하고 간명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통일부 폐지론입니다. 통일부 폐지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증인 홍두승 예.

○鄭玉任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박재완 당시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대북정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애 버리겠다라는 의도였습니까, 아니면…… 이 언론보도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남북관계를 특정 부처의 전유물로 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차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류사업을 실질적으로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부처로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로 했다 이겁니다. 물론 두 분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통일부 폐지론이 그렇게 나온 것이라면 기존에 세간에 오해가 되고 있듯이 통일부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북업무가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박재완 당시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이 그러한 주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홍두승 주도를 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그쪽 담당업무니까 많은 토의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 외교통일안보분과의 역할과 한 일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통일부가 너무 비대해져 있고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위축이 되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외교부장관 하신 송민순 위원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런 인식을 해서 통일부는 통일부가 그간 해왔던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외교통상부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부처로 힘을 좀 돋아 줄 필요가 있다 하는데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당시에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인 박재완 현 수석이 어떠한 의도에서 추진을 했든 지금 통일부가 폐지되어 있습니까? 지금 존치된 상태 아닙니까?

○증인 홍두승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면 지금 통일부의 고유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두승 그거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 현인택 후보자가 통일부의 폐지론의 주도자였다라는 세간의 의혹과 오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홍두승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鄭玉任 委員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오늘 홍두승 교수께 또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비핵 개방 3000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상생과 공영의 큰 틀 속에서 비핵 개방 3000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는 현인택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민주당의 박선숙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홍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에서는 통일부 폐지에 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증인 홍두승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정부에서 제출한 회의록에는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월 7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난 이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박진 간사의 주재 하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인수위원이신 홍 교수님께서는 '통일부가 왜 있어야 하고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증인 홍두승 그런데 그것은 폐지론하고 다른 이야기지요.

○박선숙 위원 바로 그 이어서 간사인 박진 간사께서 통일부 폐지의 근거와 논의 배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을 서면으로 갖고 있는데요?

○증인 홍두승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까? 그러면 맞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박선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인선서를 하시고 증언을 하시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이 서면의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러면 그게 맞겠지요." 이게 증인……

○증인 홍두승 그것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것은 통일부 폐지론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박선숙 위원 제가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통일부 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은 통일부가 있는 한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남북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 위원 가운데 한 분이.

이게 폐지론이죠.

○증인 홍두승 ……

○박선숙 위원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면 저희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증인 홍두승 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통일부를 없애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선숙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목이 통일부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증인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1월 21일 인수위원회 간사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사께서 간사단의 회의결과를 외교통일분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 내용입니다.

1월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당시 통합신당의 통일부의 통폐합 폐지와 한미 FTA 문제 연계 전략으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외교통일분과위원회가 수립하자라고 인수위원회 간사회의에서 결정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간사가 분과위원회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달 받으셨습니까?

○증인 홍두승 그게 날짜가 정확하게……

○박선숙 위원 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증인 홍두승 그것은 1월 16일 날 통일부 폐지하는 것이 발표된 이후입니다.

○박선숙 위원 이후입니다.

○증인 홍두승 예,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 토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 전달 못 받으셨어요?

○증인 홍두승 ……

○박선숙 위원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는데 1월 16일……

그러면 다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1월 16일 전체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증인께서는?

○증인 홍두승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1시입니다.

○박선숙 위원 예, 1시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홍두승 예, 제 바로 옆자리입니다.

○박선숙 위원 인수위원회 발간 백서에서는 통일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 이 1월 16일 오후 1시 회의에서 전원 만장일치 박수로써 개편을 확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어떠한 반대나 이의 제기 표시를 하신 적이 없으시죠?

○증인 홍두승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우리 홍 증인께서도 하신 적이 없으시죠?

○증인 홍두승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만장일치에 동의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1월 21일, 지금의 민주당 전 통합신당이 '통일부의 통폐합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미 FTA와 연계시키려고 하는데'라고 인수위원회 간사회의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대응방안을 분과위원회에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홍두승 간사회의의 결과라고 하면 아마 이야기가 됐을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대응방안은 수립하신 기억이 없다는 거죠?

○증인 홍두승 예.

○박선숙 위원 홍 교수님은 참석은 하셨습니까, 1월 21일 월요일 분과회의에요?

○증인 홍두승 인수위 통일외교안보……

○박선숙 위원 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회.

○증인 홍두승 그럼요.

○박선숙 위원 우리 후보자도 참석하셨죠?

○증인 홍두승 그럼요. 매일 아침에 3인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간사께서 이 중요한 사안을 전달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맥락은 이렇습니다.

1월 7일 외교통일분과위원회에서 통일부 폐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전체회의에 통일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상정이 되었고 우리 후보자와 증인께서 참석하셔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단계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보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사인 박진 위원장께서 전달을 하셔서 대응방안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진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세 분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홍두승 증인께서는 이제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서 5분씩 하도록 시간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도 마무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1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문학진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셨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겠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오늘은 북한과의 상생·공영을 이야기하고 또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바로 다음날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일일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것들 기억하시죠, 후보자께서?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중에 그런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흡수통일을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교민간담회인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국방장관도 불필요하게 북한 자극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는 듣기 좋은 얘기했다가 또 그다음날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너희들이 까불어봐야 무릎 꿇고 우리한테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자극성 발언을 하면 과연 남한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고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이런 점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자극적인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 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아까도 어떤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사실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끝난 것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체제 경쟁이라고 그런 비교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세계에서 경제가 13위 이렇게 가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문학진 위원 그렇죠, 이제 거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진 자의 입장에서 크게 싸안고 가는 그런 자세가 남북 관계를 푸는 데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물론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북한을 포용하려고 장기간 동안 포용정책을 해 온 것 아닙니까?

○문학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의 책임 있는, 특히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한미 동맹만 굳건하게 잘 유지 발전시키면 남북 관계는 자동적으로 잘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쪽으로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미국과만 잘 해 나가면 대북 관계 별문제 없이 풀릴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그런 사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미 관계를 물론 잘 가져가자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동시에 남북 관계도 잘 가져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남북 경협을 이번에도 1조 5000억이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후보자께서 2002년 동아일보에 쓴 칼럼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정상회담을 탈정치화해야 한다. 실질적 결과가 없는 일회성 회담은 심각한 후유증만 낳을 수 있다."

2002년에 쓰신 거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지칭해서 한 얘기 같은데, 이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가져와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오래전에 쓴 것 같습니다.

○문학진 위원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

2007년에 후보자가 조선일보에 쓴 칼럼을 보면 "유화정책의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허망한 희망만을 갖게 해서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쓴 기억이 있으시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제가 썼다면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문학진 위원 그렇다면 대북정책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유화정책은 폐기해야 된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포용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아마 제가 쓴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문학진 위원 평양, 몇 번 갔다 오셨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없고, 금강산·개성공단은 갔다 오셨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통일부장관 하실 분이 그래도 좀 가 보고 싶지 않았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마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문학진 위원 지금까지 평양, 금강산, 개성공단을 한 번도 안 갔다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인데요. 가 보고 싶었을 텐데, 학문적 탐구심이나 그런 것으로도 가 보고 싶었을 텐데 한 번도 안 가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문학진 위원 시간 때문에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윤상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말씀하신 것을 '흡수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헌법 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흡수통일로 얘기하는 것은 헌법 4조에 맞지 않는, 헌법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자님을 통일부장관으로 내정한, 중책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야말로 우리 평화통일의 염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미력하나마 노력하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대중 정권에서는 정세현 통일부장관, 그 당시 최고통치권자의 국정철학과 대북정책, 대북관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통일부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정자님을 이렇게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신 것은 비핵 개방 3000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대북정책, 통일관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노당의 강기갑 대표하고 대변인인 박승흡 대변인하고 만난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제 정당이 시민단체와 같이 협심해서 반정부 투쟁을 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은 북핵 문제입니다.

체제보장을 해 주면 북한핵을 포기할 거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요.

○윤상현 위원 그런데 쉽게 포기를 안 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윤상현 위원 오히려 핵보유국임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핵군축회담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역시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핵보유국임을 전제하에 대응전략을 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전략을 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남한의 장본인들이 어느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소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지난 10년 동안 전임 정부하에서의 통계치를 보면 14조 원에 달하는 대북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돈이 결국 핵무기 개발에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일부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하시지요?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난 전임 정부에서 2006년 10월 달, 북핵 실험한 2006년을 빼놓고서는 계속해서 기권을 행

사하거나 아예 포기를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작년에서야 비로소 이명박 정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매년 2400만 달러의 액수를 지정해서 인권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7년도에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인권법을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 인류적 가치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한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통일부의 모습을 보면 정치장관 들러리 10년, 대북 퍼주기 10년, 그리고 일방적인 퍼주기 10년 이게 통일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통일부가 어떤 반성이 없다, 그래서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아직까지 관성에 젖어 있지 않나, 그래서 새로운 통일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통일부의 어떤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차례인데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오전에 묻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은 것 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비핵 개방 3000에 있어서 단계적 이행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1단계가 불능화 단계, 2단계가 핵 폐기 이행 단계, 3단계가 핵 폐기 완료 단계인데 통일부의 설명에 의하면 1단계에서는 뭘 하는가, 핵 불능화를 북한이 이행하고 그것이 검증이 되면, 검증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검증이 되면 경제 지원하는 여러 가지를 가동을 준비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이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능화가 검증이 돼도. 실질적인 이행은 핵 폐기를 북한이 이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되는데 지금 북한이 핵 폐기를 시작하려면 어느 세월이 걸릴지, 그리고 어떤 단계로 무슨 복잡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통일부는 그때까지는 손잡고 앉아 있어야겠네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불능화가 되면 아주 전격적으로 저희들이, 이를테면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고위 실무자 회담을 저희들이 제의도 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협력 제도를 같이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박상천 위원 제도를 만들고 법적 장치를 갖추고 이런 것만 하지 실질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시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실질적인 경제 협력 사업은 3000 플랜에 다섯 가지 큰 구상이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사전에……

○박상천 위원 그것은 핵 폐기 이행 단계에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닙니다.

그 이전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플랜은 예를 들면 인력에 대한 교육이랄지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사업,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박상천 위원 이거 우리 외통위가 규칙을 잘못 정해 가지고 답변을 길게 하면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후보자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비핵 개방 3000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거기에서 뭔 일을 벌이겠다, 3차 연평해전 같은 것을 벌일 수 있다 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 3차 연평해전 같은 류의 그런 행위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지금은 그런 개연성이 아직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천 위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개연성이 적다고 봅니다, 저는.

○박상천 위원 적다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상천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중국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에 가서 북한 최고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 결국 북한도 6자회담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남북관계에 그렇게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금 당장 안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잠깐요. 북한 총참모부나 조평통 사람보다는 김정일이 왕자루이한테 한 말이 더 신빙성이 간다, 이런 뜻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어떤 게 더 신빙성이 간다는 것보다는 지금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6·15와 10·4 선언 그것을 존중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존중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10·4 선언의 경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꺼번에 혼재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남북이 그런 정신을 존중해서 합의할 수 있다, 합의를 위해서 대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러니까 10·4 선언에 열거된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골라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골라서 하겠다기보다 하여간 그 내용에 대해서 실현성 여부를 서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를 빨리 송환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어떤 복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하여간 가능하면 획기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라도 빨리 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서독식으로 경제 지원과 결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미국이 아마 거의 유일하게 우리처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인사청문회를 허들로 비유하더라고요. 허들을 넘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짤막짤막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제가 드렸고,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셨는데 비핵 개방 3000하고 상생·공영 정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비핵 개방 3000을 상생·공영 정책이 대체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부적으로 녹아들어가서 어떤 실행계획 같은 겁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닙니다.

○권영세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상생·공영 정책의 큰 틀 속에 또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같이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대북 정책, 지난 정부 대북 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대북 정책이 그랬겠지만 비핵·개방

정책도 뭐 상생·공영 정책도 자체로서 자족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단계별로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단계 단계별로 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유인책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책에 대해서 지금 문헌상으로는 저희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권 위원님의 자족적이지 못하다는 그 표현에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플랜이 딱 들어가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담으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권영세 위원 지난 정부의 통일 정책들을 보면 경제 지원을 통해서 대북 변화를 유도한다, 이런 내용인데 다만 지원이라는 수단과 궁극적인 목표, 즉 변화라는 양자 사이에 어떤 당연한 인과관계를 상정한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수없이 지난 10년 동안 했지만 궁극적인 목표에는 도달되지 못했고, 따라서 현재도 남북관계가 미진한 상태에 있는데 신정부 정책이 비핵화·개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지 않고 상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방향이나 수단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청와대나 다른 부처가 아니라 바로 통일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권영세 위원 관련해서 그 6자회담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홍정욱 위원이 질의하실 때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6자회담이라는 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남북 직접 대화가 바람직하다, 가장 제일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자회담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틀이 맞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맞습니다.

○권영세 위원 핵 문제는 지금 북한이 지금 누구를 향한 레버리지(leverage)로서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뭐 미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권영세 위원 자, 그렇다면…… 물론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2+4 회담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승 4대국이 독일 문제의 종국적인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이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미국을 향한 레버리지로서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 간의 합의로 과연 그게 가장 유용한 틀이라고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이상적으로 보면 남북이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6자회담이 탄생되었고 그것이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자회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세 위원 여기서는 지금 이상 문제가 등장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물론 남북문제를 모두 국제화하는 데 반대합니다. 즉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미 공조의 틀 속에서 무조건 다 해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를 하는데 남북문제가 불가피하게 국제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고, 이 경우에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6·15 회담에 대해서는 최초 회담이라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분단 고통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라는 우리 현인택 내정자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10·4 선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백화점식이고 또

지난번에 송영선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비용 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지금 의문이 되는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검토를 철저하게 과연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해 보고 항목별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하여간 그것도 앞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난, 그러니까 김하중 장관 계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국민적인 합의를 포함해서 우리가 부담능력이 과연 되는지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화가 되어야지 우리가 입장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가 있겠지만 입장 자체도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대화가 시작되면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차원에서 통일부에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실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창조의모임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예, 홍두승 교수가 가셨고 제한된 시간 때문에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분명히 2008년 1월 16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만장일치로,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통일부 폐지론이 금시초문입니까, 인수위 내에서, 인수위원으로서?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전까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입장도 아니었고 결과를 사실상 몰랐습니다.

○박선영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만장일치 자리에는 저는 있었습니다. 예.

○박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자, 통일문제가 국내문제입니까, 국제문제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물론 남북한의 문제입니다.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계속 쓰셨던 논문은 남북한의 국내문제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물론 우리 분단의 어떤 원인이라 할까, 지난 어떤 현대사에서 보면 이것이 남북한에만, 문제만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면 평화체제 문제에도 그런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문제도 동시에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위원 지금 현 후보자께서는 이 통일문제를 국내문제도 아닌 국제문제에 가까운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계속해서 답변과 질의가 겉돌고 있고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당 위원들로부터도.

우리 헌법상 북한은 분명히 우리 영토고 우리 국민이고 한반도는 같은 한나라입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의 목적이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매진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데 2008년도 1월 7일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 받으실 때요, 분명히 통일부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은 북핵 폐기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통일문제를 국제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의 목적이 북핵 폐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통일부의 목적은 아닙니다. 통일부의 목적은 통일이

지요.

자, 탈북자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2005년도 현 교수께서 쓰신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위하여'라는 연구논문에 보면요 탈북자문제에 왕도가 없다라고 쓰셨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시겠지요? 이런……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탈북자문제를……

○박선영 위원 탈북자문제에 왕도는 없어 보인다, 제가 그대로 쿼테이션(quotation) 해서 지금……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마 탈북자문제를 해결할 왕도는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영 위원 문자 그대로 탈북자문제에 왕도는 없어 보인다라고 쓰셨어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게……

○박선영 위원 그런데 탈북자문제에 왕도가 없고 탈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띠고 계신 분이 통일부장관이 돼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왕도가 없다는 말씀을 방관자적이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니, 한중협력 시대를 위해서 쓰신 기고문입니다. 거기에 중국하고의 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탈북자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왕도가 없다, 그럼 통일부장관이 돼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탈북자문제는 더욱이 중국을 통해서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동남아나 몽골이나 러시아를 경유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죽음을 불사하고 자유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개발도 하나도 해 놓으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통일부장관에게 통일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호주의가 중요하다고 논문에 여러 번 쓰셨지요. 그러면 현 MB정부에서 박왕자 씨 사건이 났을 때 상호주의의 룰에 입각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먼젓번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요.

○박선영 위원 간단하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탈북자 문제에 왕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탈북자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전혀 무시하거나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논문 읽어 봤습니다. 여기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5년도 그 논문에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DJ 정부 비판하시면서요, 'IMF 이후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적인 유인책을 쓰는 햇볕정책을 그것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그게 타당하기나 한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 개방 3000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설혹 이 정부가 일정 부분 포장을 달리해서 상생·공영으로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하에서 비핵 개방 3000이 기능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문제는 우리가 남북 문제를 진정으로 풀기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희생, 비용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만 목적과 또 그것을 하는 수단 이것이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이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 대규모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국민들 합의가 좀 부족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면 그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위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현 교수께서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지 그것은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정부가 바뀌면 그전 정부가 했던 것은 그다음 정부가 이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또 새로, 무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두 가지 경우……

○김충환 위원 일반적으로, 짤막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두 가지 경우보다는 하여간 새로운 정부가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습니까? 국제 관계도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일반적으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조약이라든지 합의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 바뀌게 되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마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충환 위원 어쨌든 '6·15, 10·4 선언에 대해서 정신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책임자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 그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합의하려고 했던 그 정신을 존중한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합의……

○김충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게 과거의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이 안 되니까 또 새 장관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것을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을 해 가지고 전부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장관이 결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보도는 내가 아까 들은 것하고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이 청문회가 끝나고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위의 대통령이나 또는 다른 데 자꾸 미루지 말고 좀 책임 있게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하여간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책임하에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남북 관계를 국제 관계의 하위 관계로 보고 계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들을 보면. 그렇지요?

'다각적인 여러 국제 관계 속의 한 일부분이다' 그런 관점이 좀 강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한미 관계도 국제 관계이고 남북 관계는 또, 물론 남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가 선후이고 하위 관계라고 할 것이 없이 저는 병행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통일 문제를 본다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열강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일 문제나 민족 문제를 국제 관계의 하나의 하위체계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내 말의 뜻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아들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국제적인 관계 속의 하부구조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나의 가족이다. 동포다. 우리 국민의 문제다' 이러한 애정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후보자에 대한 하나의 부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비핵 문제와 대북 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전 장관이 말씀하기를 '개성공단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확대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어떻게 전달됐느냐 하면 '비핵 개방 3000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개성공단도 확대될 수 있고 또 대북 지원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달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분명하게 병행 추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하여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지금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오늘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대북 강경파라고 하는 느낌을 현재 많이 주고 있고, 그것이 정책에 대한 책임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전달되는 것이 현재 그 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장관이 되었을 때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려진 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제 소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꼭 형식적인 문제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우리의 애정이 북한 주민이나 심지어 대화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서 볼 때도 새 장관이 상당한 애정과 성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남경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이 청문회 앞두고 언론에서 저에게 '내정자께서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을 푸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 본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 답변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아시지만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팔레스타인과의 잠정 평화 협정인 오슬로 협정을 체결했던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보았을 때 저는 내정자께서, 후보자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충분히 더 유연한 대북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답변을 제가 유심히 듣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6·15와 10·4 선언의 합의 정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향적으로 하겠다'라는 모호한 형용사가 좀 나열이 됐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봄이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1999년도의 연평해전 전과 같은 형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북한의 이런 태도인데요. 미사일 발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정보, 보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마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국지적 군사행동을 할 것이다. 선제적 군사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남경필 위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국지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어디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특히 우리 경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막아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역시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남경필 위원 대화의 틀로 어떻게 끌어들이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까 '대화의 방법과 6·15 선언이나 10·4 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에 저도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일을 수행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만약에 NLL에다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한다든지 충돌을 일부러 야기시킨다든지 한다면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굴복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지금 대화를 하자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다시 얘기하지만 6·15와 10·4에 대한 이행 의지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선제조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실 의도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문제도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후보자께서는 적대적 상생 관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과거 육칠십 년대 냉전시대의, 서로 적대적으로 해야만 통치기반이 유지되던 냉전시대의 한반도 상황을 표현한 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강경론자들이 국지전을 도발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가장 유연하면서도 확실한 대북 대화 제의를 해 나가는 것이 큰 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적대적 상생관계는 저희가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위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유연한 대북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대북 지원 문제가 마침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검토 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안상수 위원님, 지금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구상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현 후보자께서 지금 장장 일곱 시간을 앉으셔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의혹을 한 점 없이 없애기 위한 일환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많은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몇 개, 장관 후보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1주일간 많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자기 표절 논문 및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서 BK21, 즉 두뇌한국21사업을 신청하면서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보도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BK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의 장학금으로 쓰이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참여 교수들에게 어떤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참여했던 동료 교수들도 물론이지만 저도 그 BK사업을 통해서 국고로부터 연구비를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부 대학원생의 지원을 위해서 쓰이는 돈입니다.

○구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아시아 환경 안보'라는 저서와 '동북아 환경 안보의 이론과 실제'라는 논문을 논문 실적으로 등록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것이 논문 이중 등재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께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서를 하나 쓰게 되면 그 저서가 편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학문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기준과 거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편저를 한 저서이고 또 그 공편저 속에 저의 개인 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편저를 한 사람이 그 안에 논문을 한 편 안 써도 그 공편저로 점수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나 편저자가 아닌 경우도 어떤 저서에 논문을 하나 쓰게 된 경우는 또 논문 점수를 받게 됩니다.

저는 공편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저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점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같은 책 속에, 또 제가 편저자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논문도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단독 저서 같은 경우는 훨씬 점수를 많이 받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편저는 점수가 좀 많이 낮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점수를 받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논문도 또 점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것이지 마치 같은 책에 논문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중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에서 생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상찬 위원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언론에 정정보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학문 세계에 있지를 않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후보는 지금 개성공단사업이라든지 금강산관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된다 하는 말씀 하셨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면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몇 사람 얘기하시고 이랬는데 그동안 10년 전 정부 동안 대북에 퍼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등 이런 경제적인 협력사업을 통해서 간 것도 있고 또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간 것도 있고 한데 어떤 부분들이 퍼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인도주의적 지원의 어떤 범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퍼줬다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러니까 목적에 과하게 간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경 위원 일정하게 투명성이라든지 몇 가지는 고쳐야 될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개성공단사업이라든지 금강산관광사업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퍼줬다라고 얘기할 게 얼마나 될까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저는 얼마나 될까 카운트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퍼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고칠 것이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고칠 것이 있

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미경 위원 아니, 고칠 거야 조금 있겠지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까 이런 내용들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퍼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협력도 문제가 되고 지금 윤상현 위원 같은 분들은 다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이 가서 결국은 핵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정부 10년이 결국 한 게 뭐냐, 핵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따라서 저는 앞으로 정말로, 아까 투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도주의적 지원의 목적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비핵 개방 3000 그것은 유연한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를 확대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비핵 개방 3000은 유연한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유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우선 핵하고 연계해서 핵의 단계적인 해결, 철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경제적인 지원이 간다 이것은 부시 대통령 초기의 대북정책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경 위원 많이 비슷하지요, 거의 같지요. 핵하고 연계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러나 그런 점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다면 우리의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미경 위원 물론 그동안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핵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그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연하게 북의 의도와 그 다음에 그렇지만 또 한반도의 평화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서 절충해 나가는 그야말로 실용 내지는 상생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그 줄다리기의 와중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퍼주기다 하고 비판하면서 핵하고 연계해야 되겠다, 그리고 후보자도 핵하고 연계해서 대화가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을 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유연한 대북정책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자꾸 대화가 막히고 오히려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 비핵 개방 3000이라고는 표현을 안 쓰고 상생·공영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그전에 퍼주기다 하고 지난 10년을 부정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부정해 왔기 때문에 상생·공영으로 돌아왔을 때는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 우선 나가고 인도적인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과 좀더 가까워지는 듯한 전환이 보이는데 이제 그동안 너무 공격해 왔기 때문에 공격을 변화했다는 소리를 못 하고 상생·공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아주 중요한, 한나라당 안에서 중요하게 정책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퍼주기라고 공격하고 비핵 개방 3000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한나라당하고 정부하고도 서로 굉장한 괴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경색은 자꾸 돼 나가고 이렇다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겠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 뭐를 하겠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설명하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북정책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강경정책이 아니고요, 또 포용정책이자 공영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트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창조의모임의 문국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현 위원 현 후보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몇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장관 하신 김하중 장관님이 한중 관계에도 크게 기여하셨고, 유능하신 분이었는데 지금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상하셨을, 본인도 상하시고 온 국민이 마음을 상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현직 장관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위원 현 후보님은 김하중 장관님하고 뭘 달리해서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결과를 바꾸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김하중 장관님이 해오신 잘하신 것들을 이어받고, 또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넣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김하중 장관님만큼 북한 내부라든가 중국관계에 정통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과거에 양측 간에 합의됐던 것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이 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북측에서 그냥 강경론자라고 주장을 하던 것이 이제 하나 더 이유를 댈 게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하중 장관님보다 북한과 대화하시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위치에 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래서 대통령께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될 이 시간에 정권을 인수하신 주요 인수위원 중의 한 분이셨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명예나 체면보다도 나라가 잘되는 게 중요치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 사실은 이 사람이 더 북한에서도 신뢰를 이만하면 해 줄 수 있고, 중국에서도 신뢰해 주고, 미국에서도 신뢰해 줄 만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떠오르는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으세요? 이쪽에서 종사하셨으니까 떠오르는 분이 몇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그것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저는 대통령께 과감히 한번 제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현 교수님처럼 유명하신 학자께서 굳이 이런 일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김하중 장관님보다도 더 어려우시고, 우리 한반도와 우리 후손들한테 별 기여를 못 하신다면 서로가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장점을 가지신 분이 다른 쪽에서는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서너 분 계시니 그분들을 좀 과감히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할 사람이 나서야 돼요. 그런데 현 후보님은 많은 분의 존경은 받지만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위치에 계시거든요. 비핵 개방 3000의 주도자라고 스스로 그러셨는데 그것은 일단 새로운 이미지가 생길 때까지는 기존의 것을 거의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강경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한반도에 봄을 가져오게 하는 데는 아이스 브레이커가 나서야지 대통령이 신뢰하신다고 하지만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못 하신다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 후보님이 당장 북한에서 초빙받아서 '만나자' 이렇게 될 분은 아니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문 위원님의 충심으로 나오는 고언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유념하고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국현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통일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대국적인 상황 속에서 희생을 한번 해 주실 것도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론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남갈등이 일어났다든지 또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鄭玉任 委員 통일문제 분야에 있어서도 정통하시지만 또 외교안보 분야를 아우르시는데 미국에서 그동안 냉전기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적대국가의 하나였던 중국과 물꼬를 튼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직접 대답해 보시죠.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주 그건 역사적으로는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70년대 초니까요.

○鄭玉任 委員 닉슨·키신저, 닉슨 대통령 그리고 키신저 안보보좌관이 그 당시에 중국과의 물꼬를 트는 데에 큰 기여를 했는데 당시에 미국 국민들이 닉슨 대통령과 이 키신저가 대중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보였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특히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어떤 정책 입안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鄭玉任 委員 예,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소련이라든지 또는 중국과 같은 공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과 회의감을 갖고 있던 국민들이 오히려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대통령과 안보보좌관의 대중정책에 대한 신뢰를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鄭玉任 委員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 비전을 받아서 현인택 후보가 통일장관이 되면 바로 그러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나가기를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확대 추진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개성공단의 활동을 축소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축소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간 상황이 허락하면 이 문제를 더욱더 잘 발전시키도록 하자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玉任 委員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나 또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쉽게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금강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지난번에 일어났던 금강산 총격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鄭玉任 委員 바로 우리 대한민국 관광객이 어처구니없이 피격된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는커녕 유감표명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인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왜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해야 될 수장인 통일부장관이 북핵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는데 지금 바로 오늘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미국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이 인정해 주면서 관계개선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함의를 지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북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북핵문제 해결이 우리 대북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놓고 생각할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행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좀 이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까지는 북핵문제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개선에 주력했다면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북핵문제가 우리 안보에 주는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한 채 남북관계만을 위한 남북관계를 추진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겠지요, 남북관계만을 위해서는.

○鄭玉任 委員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단계 단계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지난 정권 10년보다 더 과감한 대북지원책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비핵 개방 3000의 주요 골자 아닙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내 문제냐 국제 문제냐의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상당히 특수한 관계이고 국내 문제이면서 국제 문제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북정책은 북한만을 미시적으로 아는 인사보다는 전체 국제정치적인 동향 속에서 대북관계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조를 모색하는 남북관계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鄭玉任 委員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아주 실용적으로 접근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인 퍼주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퍼주기의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일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춘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식 위원 이춘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오전에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데 또 게재하는 것은 표절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표절은 아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자기 표절 얘기시지요? 예.

○이춘식 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그래서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학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이 이런 말이 없어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이 문제의 모든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전부 다 동의해서 통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지금 부재합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자기가 갖고 있는 평가기준이 있고, 어떤 기관이 갖고 있는 평가기준이 있고, 학회가 갖고 있는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들어가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소위 이 표절 문제가 자꾸 나오고 이중 게재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정말 바람직하건데는 우리 정부가 나서든 어떤 권위 있는 학회나 기관이 나서서 정말로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만들어 주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통일부가 폐지될 뻔했다가 살아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가 또 통일정책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것이라든가 또 정책이 수립되면 실천하는 능력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으냐.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이런 능력을 많이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1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고 또 정말 좋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도 정부에서 내건 지가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통일부의 능력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통일부의 조직을 보니까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 능력도 더 강화돼야 될 거고, 특히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도 조직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집행 능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통일교육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 보면 북한이 정말 굶어 죽는 나라이다, 그래서 북한하고 합치면 남한까지 같이 굶어 죽는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어떻게 좋아지고, 통일이 되면 훨씬 좋은 나라가 된다는 쪽으로 교육을 바꿔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특히 청소년 교육이 저는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고 또 우리 통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해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1분 더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해서 3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도 했고 또 외환보유고가 1조 8000억으로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그리고 체제도 보장이 되고. 이래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연락부장 왕자루이가 왔을 때 '북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중국한테는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하고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대중국을 활용해서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중이 협력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저는 아주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분 더 하시고 휴식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약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신낙균 위원 신낙균입니다.

아까 증인으로 오셨던 홍두승 교수님이 '우리 현 후보가 장관감으로 어떠냐?' 그러니까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넘칠지는 몰라도 적절한 데는 문제가 있다, 적합하지는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차 질문에서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매듭을 못 짓고 간 문제 중의 하나가, 그런 문제를 매듭을 지어 보면요.

남북 합의사항은 지키는 게 맞습니까?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는데 조평통 선언이 '대한민국이 이런 걸 안 지켰기 때문에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 했고 통일부의 대변인 논평은 '남북 간 관계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이니까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의하시냐고 그러고 제가 답을 분명히 못 들었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조평통에 대한……

○신낙균 위원 이것은 한두 마디로 하시면 되지요. 우리 통일부의 논평에 대해서……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동의합니다.

○신낙균 위원 그건 동의하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것은 왜냐하면요,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폐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낙균 위원 예, 바로 그 점이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위에서도 '남북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재평가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 평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한 것은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뭐 이래서 그것은 다 이행 안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입니다. 그거

를 잊어버리셨는지 아니면 그 의도를 그 당시에 잘못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충되는 안이, 또 제가 문제시하고 있는 거는 같은 위원회에서 '통일부의 목적이 북핵 폐기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 기억하십니까? 회의록에 나오는 안입니다. 위증하실까 봐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먼저.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우선을 둔다, 북핵 폐기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하십니다. 통일부 단독으로 다룰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를 최우선 과제로 놓는다면 남북문제는 실마리도 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부는 외교부나 국방부의 대북 역할하고 구별돼야 되는데 그 구별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후보께서, 그것은 물론 그전이니까 변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신뢰 구축이 우선이고 대화 복원해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데 후보께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적이라고 하는 데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북한은 실패한 국가라고 했고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되풀이하기 싫은데,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인 상대가 있는 이 남북문제에서는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고 서로 기대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어려우시지 않은가, 다른 문제의 전문성과 실력을 다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어렵다는 뜻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경협 문제에서,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는 확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도 후보가 언급하신 게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확대하면 세금만 더 들어간다, 차라리 나들섬이 창의적이고…… 나들섬 구상이 훨씬 창의적이라고 주장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부와 현 정부의 방향하고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시면 어렵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경협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보께서도 냉각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대화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상대방이 우리 후보에 대해서 신뢰와 그런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는 신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대화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 대화 자체가 전혀, 될 가능성을 지금 못 갖고 있는데서 그것은 너무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도 대화의 결여와 북한의 오해라고만 했는데 왜 상대방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설명 들으면 매우 좋은 정책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 쪽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이것을 편 가르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좋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오늘 아침에 말씀도 있으셨는데(후보 말고 다른 분) 우리는 이 냉각된 남북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문제로 보고, 지난 1년과 같아도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나쁜 4년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양심과 명예를 지키면서 자신을 인정해 주신 대통령께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약 5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한숨 돌리시고 물도 한 잔 드시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후보자께서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일 문제 또 남북관계 이런 데에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특히 아마 통일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통일 과정 이런 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1982년에 독일의 기민당이 13년 만에 사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받았습니다. 집권 직후에 혹시 기민당의 콜 총리가 대 동독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송민순 위원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 같습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콜 총리는 집권하자마자 독일 의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정부는 지금까지 사민당 정부가 해 오던 대동독과의 합의를 존중하고 또 진행 중인 협상을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정책선언을 바로 합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콜 총리는 독일의 통일을 달성한 총리로 기록됩니다. 이것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아까 후보자께서 여당 일부 위원들의 질의와 관련해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정책도 또 새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부처의 장관이라면 모르지만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는 그것은 저는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상대가 그대로 있거든요. 상대가 그대로 있으면, 상대는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꾼다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합의를 한들 그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그동안 있었던 합의들에 대해서, 특히 10·4 선언 같은 데 대해서 돈이 많이 든다, 무조건 수용하지 않겠다 등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현 후보자께서도 굉장한 부담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시게 되었는데 10·4 선언 같은 것은 잘 보면 그것은 이행계획서도 아니고 오히려 어쩌면 LOI, 레터 오브 인텐드(Letter Of Intent), 의향서 비슷한 것입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추진토록 협의하겠다,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 가지고 퍼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10·4 선언 같은 데서 '북한에 선박블럭공장 건설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광산 투자 계획을 협의한다.' 이것을 퍼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이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선박공장 많이 세웠거든요. 그것이 중국에 퍼준 것입니까? 인도에 우리가 제철공장 세운다고 해서, 포철이 초기에 2억 불 넣고 총액이 한 120억 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인도에 120억 불 퍼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을 투자개념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세를 분명하게 보일 때 현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루종일 북한 핵 문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현 후보자께서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Yes or No'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는 불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송민순 위원 불가분의 관계지요? 그런데 이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꾸 '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러한 전제에 맞추어 가지고 정책에 조건을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그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보는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볼 때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기다린다, 내부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특히 미국은 과감한 방식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 접근

할 텐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의 핵 문제에 대한 접근속도와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우리의 접근속도가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동적으로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북한이 테이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진전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현 후보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는 최근 북한 관영매체들이 연일 남북간의 무력충돌 가능성 언급하고 있는 것 듣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포동 2호 장거리미사일까지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어제 다녀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물론 가능성은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마도 긴장을 다소 고조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정의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단순히 협박용이거나 또는 벼랑 끝 전술로 치부하기보다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6자회담 차원에서 핵시설 불능화에 맞추어 가지고 제공되어 오던 대북 중유 에너지 지원이 사실상 다음달 끊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경제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도 좀 어려운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의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하여간 에너지 지원 문제는 통일부가 혼자 단독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중유 지원이 지금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비한 것을 장관에 취임하시면 아마 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한·중·일과의 달러 스와프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거에 독일이 통일할 때와 같이, 2+4라고 그랬잖아요. 서독, 동독과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의 2+4의 합의로 인해서 되었듯이 우리도 지금부터 최소한 한·중·일의 그런 어떤 연합체, 정치 경제 연합체에 대한 노력을 해 갈 필요가 있다. 지금 3개국의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부터 그 시발이 될 수가 있고 이번의 달러 스와프가 상당히 좋은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으로 입각하시거들랑 그런 한·중·일 공동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누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아래 평양에 갔다 온 분도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요. 차관보인데 아브라모위츠인가요? 하여튼 지금 이런 북한 핵무기 보유국 인정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도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핵무기 보유국 인정 발언이 계속되면 6자회담 틀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 공조를 누구보다도 강조해 온 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미 간의 공조를 위한 후보자의 의견을, 각별히 노력이 요구되고 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한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또 수행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정의화 위원 제가 사실 오늘 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사적으로도 들어보니까 이 개성공단에 대한 발언이 좀 왜곡되고 와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후보자께서 말씀하는 그 상생의

남북 경제협력 이게 과연 무엇이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개성공단 같은 것도 정말로 효율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서, 또 북한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개성공단 발전을 보면 유아기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탄탄하게 잘 가서 우리 기업들도 그것을 통해서 적정한 수익을, 기업은 뭐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받침을 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남북 관계에 발전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지금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통일부장관께서는, 그 기업의 이윤은 물론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기업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남북 간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그걸 더 확대해야 되겠고 지금 아직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수준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정말 말씀대로 컴퓨터도 들어가고, 거기가 제대로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통일부에서 또 서포트(support)를 해 줘야 된다…… 장관께서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강조도 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박선숙입니다.

장관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내가 살면서 장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에 준하는 고위공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런 생각을 과거에 크게 해 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숙 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내가 통일부장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뭐 통일부장관 그런 생각도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거듭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통일부 폐지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거짓이지요. 앞에 증인으로 출석하셨던 같이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내셨던 증인이 증언했듯이 통일부 폐지에 관해서 1월 7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1월 16일 통일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후보자를 포함한 인수 위원들이 전원 찬성했고, 후보자도 찬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특히 비핵 개방 3000에 관련된 진술은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평소 비핵화가 없이는 대북 지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은 성공할 수 없고 확대하더라도 기업이 이윤을 못 내고 국민 세금만 들어간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지난 남북정상에 또, 지난 남북정상의 결과는 반쪽짜리이고 다음 정부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후보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에 해당할 겁니다. 일관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관성은, 후보자청문회에 등장하신 후보자의 변신에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일단 청문회는 피하고 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장관직을 앞에 놓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꾼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이처럼 무소신한 태도는 통일부장관은 물론이고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핵 개방 3000, 이것은 우리가 주장할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채택을 하거나 표방할 정책입니다. 북한이 비핵 개방 3000을 하든 5000을 하든 그건 북한이 선택할 문제이지 우리가 비핵 개방이라는 큰 방향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3000달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러한 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비핵 개방 3000이 햇볕정책과

같은 맥락이라는 지원 발언은 딱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궤변을 포기하고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포용정책이라는 큰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제주도 토지 변칙 증여와 증여세 포탈 등의 범법행위에 관해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할 일이 아닙니다. 택시회사의 직원들을 위해 헐값에 팔고 땅을 운영 자금용으로 사셨다는 후보자의 변명은 편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땅 사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 증여세를 안 내려고 변칙으로 샀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일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 지켜 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편법 증여와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세법 44조2항과 시행령 26조4항 위반입니다.

국회 동료 위원들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법이 자기편에게는 부드럽고 남에게는 가혹하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법 위반도 문제지만 법 위반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청문회 결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북한이 우리 현 후보자를 내정한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어떤 장관이나 내각 참사가 됐든 임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별로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영 위원 우리는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북한이 우리 장관 임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것 좀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도? 그런 어떤 북한을 좀 나무라야 되는 이런 사안에서도 마치 북한이 그러니깐 우리 현 후보자가 부적합한 것처럼, 이런 논리는 정말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비핵화를, 북핵 문제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우리 현 후보자께서 이렇게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핵 문제는 6자 회담에서 하고 있습니다. 6자 회담에서 통일부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이건 아세요? 그런 건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회담의 본부장이 외교통상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진영 위원 6자 회담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통일부가 별로 역할이 없어요. 각 워킹 그룹에 하나쯤 들어가 있는 것 정도지……

그래서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그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돼요. 장관으로서 북핵 문제의 의지를 관철하려면 6자 회담 진행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말이지요.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이런 남북 간의 평행선이 좀 돌파가 되고 또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뭔가 국면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금강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일어났던 금강산 총격 사건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적정한 조치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 관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 아니면 뭐 다른……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큰 틀에서 그것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어쨌든 국면 전환의 어떤 돌파구는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그게 과거 정부와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랄까 인권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도 두고 있다, 그래서 탈북자 문제는, 국내에 와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일부장관으로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 개선할 수도 있는데 밖에 있는 탈북자가 문제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통일부가 그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의 방황하는 탈북자 인권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여러 주장을 많이 했어요. 법도 개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데 통일부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후보자께서도 쓰셨어요. 한반도 비핵화. 그런데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앞으로 상당히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영 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없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진영 위원 우리는 이미 비핵화가 다 됐고 그런 핵개발 의사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북한은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9·19 선언에도 들어가 있고 10·4 정상선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북핵 폐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것 아닌가요, 지금?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라도 북핵 폐기라는 용어를 계속 통일해서 써야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은 같이 검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주한미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월과 2월 초 죽 거쳐서 민주조선, 노동신문, 조평통 성명서, 북한 총참모부 성명서 다 나왔습니다. 수차례 나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성명서와 북한 외무성 성명서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아마 그것은 기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송영선 위원 기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내부 단속용일 때는 이것에 모든 것을 싣습니다. 그리고 대남용·대미용일 때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씁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소스를 볼 때 이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에 대북 지원에 얼마가 북한 핵개발 미사일에 쓰였는지 질의하자 '계산해 본 적이 없다' 또 진영 위원님이 10·4 선언을 근거로 북한이 공동어로 수역을 요구하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후보자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20년간 북한 문제 고민했다는데 도대체 이때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또 현금이 얼마인지, 그것이 핵개발에 미사일 한 발 개발에 얼마 들고 그다음에 플루토늄 개발에, 핵탄두 개발에 얼마 들고 HEU 탄두 개발에 얼마가 드는지 계산 안 해 봤다는 것은…… 지금까지 고민 안 하셨다면 정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갖고 장관직에 임해야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확실히 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2월 1일에서 6일까지 6일간 워싱턴에 가서 힐러리 클린턴의 대북정책, 대동북아정책의 실제로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추가적으로 셀리그 해리슨을 만났습니다. 해리슨

잘 아시잖아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잘 압니다.

○송영선 위원 북한을 열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다 와서 태도를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해리슨이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해리슨이 가서 만난 사람이 잠깐잠깐 만난 것이 아니고 6시간 반 얘기한 사람, 4시간 반 얘기한 사람, 45분 얘기한 사람, 2시간 얘기한 사람인데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김영대 최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의춘 외무성 장관, 리찬복 국방부 대변인을 만났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은 69파운드의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다 만들었다,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지고, 플루토늄 가지고 남측에 협상할 것은 없다, 물론 이것이 북쪽에서 블러핑(bluffing)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6자회담에서 얘기할 것은 이 핵무기를 가지고 언제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로 폐기를 시켜줄 것인가, 동시에 미·북 수교를 해 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는 그때 고려하겠다, 또한 주한미군은 계속 문제가 해결되어도 미·북 관계 개선돼도 그냥 있도록 할 것이냐 하니까 리근 국장하고 리찬복 대변인이 '그것은 그때 가서 보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장관이 되시자마자 첫 번째 북한에서 제안할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경수로 지어 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1차 경수로 짓는데 돈을 얼마 썼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34억 불이지만 한전의 빚까지 다 합치면 7조가 넘습니다. 7조가 넘는데도 문제가 끝이 안 납니다. 또 2005년 9·19성명에 보면 200만㎾ 그것도 해 달라는 겁니다. 7월 12일 날 제안한 것을 리컨펌(reconfirm) 했습니다. 북한이 제안하는 것은 경수로 지어주고 경수로가 완료되고 그것이 완전히 작동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에너지를 전부 제공해 달라는 것을 자기들이 제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6자회담에서 또한 오바마 정부에게도.

이 부분 이렇게 나올 때 아까처럼 후보자라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 당장 당면될 문제입니다. 경수로 건설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경수로 건설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에서 적당한 시기에 그 문제가 논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북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송영선 위원 6자회담이 나오면 바로 이슈를, 북한이 지금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베러피케이션(verification) 할 것 없다. 왜? 플루토늄을 전부 핵무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베러피케이션을 할 수 없다, 경수로를 지어달라 이 얘기를 지금 셀리그 해리슨이, 그 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경수로 건설이 아주 급박한 이슈입니다. 7조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우리 10년 동안 해 봤지만 사실은 끝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당장에 답이 없다면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장관이 되신 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뭐를 얘기를 했냐 하면 미국이 일본을 설득해서 중유 보내라 해라, 만약에 그것 안 하려면 러시아 중국 한국이 중유를 계속 보내 달라…… 중유에 대한 요구도 또 나옵니다. 핵 불능화하고 아무 관계없이 중유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시면 철저히 '모릅니다' '그 정도 고민해 봤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한두 푼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홍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남북대화는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핵 문제 해결 없는 남북대화는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정욱 위원 2003년 전략연구 논문에서도 보면 '식량 원조도 할 수 있고 대화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연계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결국 핵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중한 현안이고 남북대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대화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든 안 하든 봐 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조건 없이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래서 그것은 만일 장관직을 맡으시기 위해서 소신이 변화된 것이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핵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데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위중한 현안은 뭡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글쎄, 체제 보전이겠지요.

○홍정욱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비핵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것은 정권의 안정성이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의 결여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개방에 대해서도 북한이 시혜성 햇볕정책, 즉 한마디로 개방을 독이 든 당근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논문에서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즉, 핵과 폐쇄성이라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 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위중한 현안이 체제 보장이고 그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유지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핵과 폐쇄성인데, 비핵 개방 3000은 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성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 말로만 들으면? 차 떼고 포 떼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것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입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자, 우리가 그것은 아까 비핵 개방 3000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송 위원님도 그 점을,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개방을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강압적 개방이라든가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6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홍정욱 위원 장관님, 제가 잠깐 자르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장관후보자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게 '북한이 시혜성 햇볕정책을 독이 든 당근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게 어떤 철학이 내포된 개방이건 간에 개방이라는 용어와 개방이라는 정책수단 자체를 독이 든 당근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앞으로 이 비핵 개방 3000을 고수하면서 이것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해서 북한에 전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참 여러 모로 겸허한 답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 발자국만 더 겸허해지셔서 북한이 정책의 진의를 자꾸 오해한다고 하시지 말고 현 내정자께서 만드신, 상아탑에서 만드신 정책 자체가 이상주의적 발상인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물러서거나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북한의 개방 문제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도 스스로 1980년대 초부터 개방을 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북한이 개방을 전적으로 피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개방이 무슨 체제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앞으로 6자회담이 진전되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잘 풀려 나가게 되면 국제사회에 나와야 되고, 국제사회에 나와야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북한이 앞으로…… 북한 스스로도 미국하고 지금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자체가 일종의 북한식 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어를, 개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 가지고 그 어감 자체가 북한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용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진의는 북한을 그런 식으로 압박하거나 폐쇄시켜서 어떤 체제 변화를 시킴으로써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그야말로 비핵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게 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경제 협력을 하고, 그 가운데 국제사회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게 우리 3000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질의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쨌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성과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전임 장관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고 1년 내내 저희가 기다렸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역사의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물러나셨습니다.

저는 내정자께서 그 똑같은 전철을 밟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싸움꾼이자 협상가들인 북한입니다.

참 훌륭한 학문적 성과를 많이 거두셨지만 외교적 실무나 국제협상 경력이나 큰 조직을 이끌어 온 리더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여당 위원으로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어떤 학문적인 혹은 정책적인, 경직된 원칙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향후 다가오는 임기 동안 정말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을 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홍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오늘 정책적인 그런 면에서 질문을 하면서 비핵 개방 3000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비핵 개방이라는 것이 강경정책이 아니다, 적대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여당 측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야당 쪽에서는 '이게 참 북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강경정책 아니냐, 그러니까 바꿀 용의가 없냐'…… 계속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핵 개방 3000을 만드는 데 주도하신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 참 안타깝거나 너무나 아쉬운 점 그런 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왜 이렇게 잘못 알려졌는가, 이게 왜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에 담긴 것도 굉장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이 발전도 하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귀한 뜻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못 알려졌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속상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黃震夏 委員 여기에서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게 홍보가 잘못된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것은 북한에게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알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북한을 자꾸 설득시키는 노력이 과연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명박 정부가 등장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은 없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저도 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아마 정부 초기에 비핵 개방 3000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더 소상하게 알리고 잘 홍보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시작한 지가 3월 중순 넘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미 비핵 개방 3000이 나와서 알려지기는 그 이전에 꽤 몇 개월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나오자마자 북한이 그것을 비난하고 지금처럼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도 좀더 소상히 알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어쨌든 알리는 길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비핵 개방 3000은 그 자체로 완성된 완성본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기둥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둥 안에 여러 가지 것을 담아낼 그릇이 지금 남아 있다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黃震夏 委員 제가 후보자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을 상당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북 이런 진정성 전달을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국면 전환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무엇인지 이것도 잘 생각을 해서 비핵 개방 3000이 가지고 있는 뜻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예, 동의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자께 자꾸 '통일 전문가가 아니다, 통일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통일 전문가가 정치적으로만 풀어서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이 통일 전문가가 아니고 통일만 계속 무슨 논문을 썼다고 해서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이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일이 바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려야 통일이 쉽게 될 수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거다 생각할 때 정치적인 쪽에서의 배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서 국제 공조를 통한 통일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적격자다 생각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이니까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시겠지요. 우리는 그런 점을 유념해야 된다, 또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한다라는 쪽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자꾸 다른 분들이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후보자께서 그 문제점에 자꾸 걸리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저는 여기 동료 위원들께도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무슨 주민등록 관계, 위장전입 관계 이런 적법으로 판정되고 그런 것도 자꾸 신문에 나고 이렇게 소문으로 떠돌아다닌 것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자꾸 받으시면서, 또 답변하시려고 그러면 답변도 못하면서 신문에 난 것의 기정사실화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양심으로 정말 통일부장관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면서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점을 확실하게 발표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의혹이 풀릴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책임감 등과 관련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청문회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시는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발언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의 간사를 지냈던 입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에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TF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는 정부 조직개편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고, 또 통일부의 존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과위의 내부적인 분위기는 통일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일부가 지난 정권에서 비대해지고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통일에 반대하는 정부로 자칫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남북대화 또 교류협력이라는 본연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규제개혁TF팀에도 구두로

전달하고, 또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인수위원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분과를 대표해서 발언을 통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진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이미경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인데 그냥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아까 박선숙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인수위 분과에서 분명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에, 2008년 1월 7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한 회의록에는 분명하게, 그날의 주 안건이 통일부 폐지는 아니었겠지만 주 내용이 통일부 존폐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 하는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고, 또 오히려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사실과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점이 있어서 구체적인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정부 조직개편 문제를 외교통일안보분과위에서 직접 다룬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규제개혁TF팀에서 일괄적으로 정부 조직개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또 통일부의 존폐 문제를 분과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거론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미경 위원 회의록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위원장 박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이야기, 또 통일부의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주로 논의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인수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이와 같은 통일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제가 아까 발언을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선 회의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2008년 1월 7일 회의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니까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송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송영선 위원님!

○송영선 위원 오늘 제가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증인의 질의시간에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박선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박선영 위원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저 보고 비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멀리서 그것을 못 들으셨는지 몰라도 자기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 얼굴이 안 보인다고 날 보고 비켜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진행상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거리가 멀어서 첫째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두승 교수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셔서 아주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추후에라도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혹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거나 오해가 있었으면 해명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현인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에게 많은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으나 충분하지 못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 조언과 지적들을 저는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불충분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한 기회에 보다 나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남북 관계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할 것이며 초당적 협력하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킬 통일부장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후보자께서는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서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 통일부장관 현인택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간사 위원들과 보고서 작성을 협의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현인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아홉 시간, 중간에 두 시간 쉬었으니까 일곱 시간 했는데요. 저희 당은 우리 현인택 후보자의 도덕성과 그리고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점과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경과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은 지금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또 아침에 여야 간사 협의에서 일단 오늘 질의 답변을 다 마치고 우리 간사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지금 민주당 문학진 간사께서 하신 말씀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간사 협의를 진행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간사 협의가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내일 다시 간사 협의를 거쳐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내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간사 협의를 가지고 오전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해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구 상 찬	권 영 세	김 충 환	남 경 필
문 국 현	문 학 진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주 선	박 진	송 민 순
송 영 선	신 낙 균	안 상 수	윤 상 현
이 미 경	이 범 관	이 상 득	이 춘 식
정 몽 준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석
진 영	홍 정 욱	황 진 하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구 희 권
전 문 위 원	허 영 호

○출석 공직후보자

현 인 택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중 태
통 일 정 책 국 장	김 천 식

○출석 증인

홍두승(서울대 사회학과 교수)